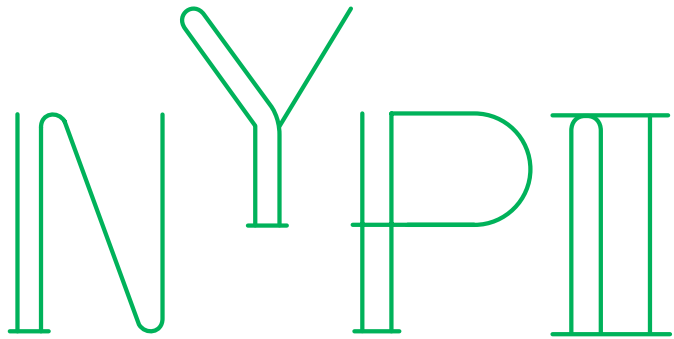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VI:

데이터분석보고서1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이
청소년 행복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책임연구원 서정아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VI: 데이터분석보고서 1

-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이 청소년 행복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 ▶ 책임연구원 : 서정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 ▶ 연구보조원 : 엄지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위촉연구원)

발 간 사 ■ ■ ■

아동·청소년기는 인간의 생애단계에서 가장 많은 신체적·정신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급속한 신체 변화와 인지 발달, 생활 환경과 사회 관계의 확대 등 변화된 상황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과 정서적 불안 등의 많은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이와 같은 발달상의 문제에 직면하여 청소년들이 주어진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하도록 돕는 일은 아동·청소년 관련 연구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에 관한 경험적 조사연구는 다양한 학문분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대부분 특정 시점의 데이터를 활용한 횡단적 연구로서 패널 데이터를 토대로 한 종단적 연구는 드물었다. 2003~2008년 기간 동안 본원에서 수행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n Youth Panel Survey; KYPS)는 청소년의 생활·행동·의식 전반에 대한 국내 최초의 종단조사로서 청소년 연구의 활성화와 관련 정책 개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대상과 연구내용을 보다 확대하여 아동·청소년 성장·발달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0년에 표집된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의 3개 패널 총 7,071명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2016년까지 7개년에 걸쳐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매년 조사 데이터의 일반 공개,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개최, 데이터 분석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연구성과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사업 6차년도인 올해에는 전년도에 실시한 제5차 조사결과의 데이터 클리닝을 완료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한편, 제5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학술대회,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 등 학술행사를 개최하였고, 주요 조사결과를 정리한 데이터분석 보고서와 통계 브리프를 발간하였다. 그동안 연구에 도움을 주신 학계 및 관계 전문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본 연구가 한국의 아동·청소년 관련 연구와 정책 개발에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5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노 혁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행복 증진을 위한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의 역할에 주목한다. 행복을 측정하는 변인을 주관적 복지감 개념의 하위변인인 생활만족도, 행복감으로 나누어 보았으며 사회자본(학대적 양육방식, 방임적 양육방식,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 문화자본(등교일 독서시간, 비등교일 독서시간, 여행 경험, 문화활동 경험), 경제자본(가족소득, 용돈), 통제변인(성별, 부의 근로여부, 성적 만족도, 부의 교육수준)을 변인으로 활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초4패널 데이터의 3차년도(초4, 2012년), 4차년도(초5, 2013년), 5차년도(초6, 2014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SPSS for Window 20.0와 HLM 7.0을 활용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행복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떤 변화양상을 보이는가?

둘째,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은 청소년 행복의 초기값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시간에 따른 개별 청소년간의 행복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행복(생활만족도, 행복감)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시기동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청소년 생활만족도의 초기값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는 성별, 성적만족도, 부의 교육수준, 학대적 양육방식, 방임적 양육방식,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있으며 청소년 행복의 초기값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는 성별, 부의 근로여부, 성적만족도, 학대적 양육방식, 방임적 양육방식,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 등교일 독서시간이 있다.

셋째,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부의 근로여부, 성적만족도, 학대적 양육방식, 방임적 양육방식,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 등교일 독서시간이 있으며 청소년 행복감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성적만족도, 학대적 양육방식, 방임적 양육방식이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 및 제언을 제시하였다.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청소년행복 증진을 위한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의 역할에 주목하여 청소년행복(생활만족도, 행복감) 증진을 위한 정책적, 실천적 개입지점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방법

- 행복을 측정하는 변인을 주관적 복지감 개념의 하위변인인 생활만족도, 행복감으로 나누어 보았으며 사회자본(학대적 양육방식, 방임적 양육방식,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 문화자본(등교일 독서시간, 비등교일 독서시간, 여행 경험, 문화활동 경험), 경제자본(가족소득, 용돈), 통제변인(성별, 부의 근로여부, 성적 만족도, 부의 교육수준)을 변인으로 활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초4패널 데이터의 3차년도(초4, 2012년), 4차년도(초5, 2013년), 5차년도(초6, 2014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SPSS for Window 20.0와 HLM 7.0을 활용하였다.

3. 주요결과

- 첫째, 종속변인과 관련하여 초4패널 청소년의 생활만족도는 초등학교 6학년에 3.19, 중학교 1학년에 3.09, 중학교 2학년에 2.95로 감소하여 청소년기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생활만족도가 감소한다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행복감 또한 초등학교 6학년인 3차조사에서는 3.30, 중학교 1학년인 4차조사에서는 3.26, 중학교 2학년인 5차조사에서는 3.17로 지속적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 둘째, 사회자본과 관련하여 학대적 양육방식의 변화를 살펴보면 초6 1.68, 중1 1.79, 중2 1.63으로 중학교 1학년때 증가했다가 중학교 2학년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을 살펴보면 초6 2.25, 중1 2.11, 중2 2.15로 중학교 1학년때 약간 감소했다가 중학교 2학년 때 다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살펴보면 초6 3.07, 중1 2.97로 차수가 증가할수록 유의미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등교일 독서시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초6 38.48분, 중1 27.97분, 중2 28.15분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비등교일 독서시간을 살펴보면 초6 40.82시간, 중1 32.39시간, 중2 33.42시간으로 초등학교 6학년때보다 중학교 1학년때 감소한 것이 중학교 2학년때 약간 증가하기는 하나 중학교 1학년, 2학년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고 초등학교 6학년때보다 중학교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비등교일 독서시간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셋째, 문화자본과 관련하여 가족 또는 단체로 여행한 연간 경험을 살펴보면 초6 3.33회, 중1 2.11회, 중2 2.34회로 초등학교 6학년때보다 중학교 1학년, 2학년때 가족 또는 단체로 여행한 연간 경험이 유의미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문화활동 경험의 변화를 살펴보면 초6에 연간 4.28회, 중1에 연간 4.03회, 중2에 연간 4.58회로 중학교 1학년때 감소했다가 중학교 2학년때 다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 넷째, 경제자본과 관련하여 연간 가족소득의 변화를 살펴보면 초6 4591.63만원, 중1 4662.87만원, 중2 4611.18만원으로 증가와 감소를 모두 나타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월간 용돈의 변화를 살펴보면 초6에 약 2만 1천원, 중1 약 3만3천원, 중2에 약 4만원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섯째,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초기값에 대한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의 영향 분석 결과 통제변인만을 투입했을 때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초기값에 성별, 성적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의 근로여부, 부의 교육수준은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초기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인과 사회자본을 함께 투입했을 때에도 성별과 성적만족도는 청소년 생활만족도 초기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부의 근로여부, 부의 교육수준은 여전히 청소년 생활만족도 초기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사회자본과 관련하여 학대적 양육방식, 방임적 양육방식,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청소년 생활만족도 초기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은 청소년 생활만족도 초기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통제변인과 사회자본을 통해 살펴볼 경우 학대적 양육방식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방임적 양육방식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높을수록 청소년 생활만족도 초기값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통제변인과 문화자본을 함께 투입한 경우 통제변인 중 성별과 성적만족도는 청소년 생활만족도 초기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부의 근로여부, 부의 교육수준은 여전히 청소년 생활만족도 초기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문화자본 중 등교일 독서시간, 여행경험은 청소년 생활만족도 초기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비등교일 독서시간, 문화활동경험은 청소년 생활만족도 초기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통제변인과 경제자본을 함께 투입했을 때에는 성별, 성적만족도는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부의 근로여부, 부의 교육수준은 여전히 청소년 생활만족도 초기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제자본인 가족소득, 용돈은 청소년 생활만족도 초기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인,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을 함께 투입한 모형에서 통제변인 중 성별, 성적만족도는 여전히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자본 중에서도 학대적 양육방식, 방임적 양육방식,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여전히 청소년 생활만족도 초기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섯째, 다음으로 청소년의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사이의 3년간의 생활만족도 변화율에 대한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의 영향을 살펴보면 통제변인만을 투입한 첫 번째 모형에서 성별, 성적만족도는 부적인 효과를 부의 근로여부는 약한 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통제변인, 사회자본을 투입한 모형에서도 여전히 통제변인 중 성별, 성적만족도는 부적인 효과를 부의 근로여부는 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사회자본 중에서는 학대적 양육방식,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은 부적인 효과를, 방임적 양육방식은 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통제변인과 문화자본을 투입한 모형에서는 앞에 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통제변인 중 성별, 성적만족도는 부적인 효과를 부의 근로여부는 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며 문화자본 중에서는 등교일 독서시간과 여행경험이 부적인 효과를 나타내 등교일 독서시간이 길수록 여행경험이 많을수록 청소년 생활만족도 변화율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인,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을 모두 투입한 모형에서는 통제변인 중 성별과 성적만족도는 청소년 생활만족도 변화율에 부적 효과를 부의 근로여부는 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부의 교육수준은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사회자본 중에서는 학대적 양육방식과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이 부적 효과를 방임적 양육방식은 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었으며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지 못하였다. 문화자본 중에서는 등교일 독서시간이 청소년 생활만족도 변화율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비등교일 독서시간, 여행경험, 문화활동 경험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경제자본은 가족소득과 용돈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곱째, 청소년 행복감 초기값에 미치는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의 영향을 모형별로 살펴보면 통제변인 중 성별과 성적만족도는 모든 모형에서 청소년 행복감 초기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부의 근로여부, 부의 교육수준은 청소년 행복감 초기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의 경우 통제변인과 사회자본만을 투입했을 때, 통제변인,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을 모두 투입했을 때 모두 학대적 양육방식과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방임적 양육방식은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문화자본의 경우 통제변인과 문화자본만을 투입한 모형에서는 등교일 독서시간이 청소년 행복감 초기값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친데 반해 통제변인,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을 모두 투입한 변인에서는 효과가 희석되어 청소년 행복감 초기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자본 중 비등교일 독서시간, 여행경험, 문화활동경험은 모든 모형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경제자본 또한 통제변인과 경제자본만을 투입한 모형, 통제변인,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을 모두 투입한 모형 모두에서 가족소득, 용돈 모두 청소년 행복감 초기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덟째, 행복감 변화율에 대한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의 영향을 살펴보면 통제변인 중 성별, 성적만족도는 모형에 따라 유의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청소년 행복감 변화율에 유의미한 부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는데 반해 부의 근로여부, 부의 교육수준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의 경우, 통제변인과 사회자본만을 투입한 모형에서는 학대적 양육방식, 방임적 양육방식이 정적 효과를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부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었던 데 반해 통제변인,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을 모두 투입한 모형에서는 학대적 양육방식, 방임적 양육방식은 여전히 유의미한 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으며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유의미한 부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었다. 문화자본은 통제변인과 문화자본만을 투입한 모형, 통제변인,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을 모두 투입한 모형 모두에서 청소년 행복감 변화율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자본 또한 가족소득, 용돈 모두 청소년 행복감 변화율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지 못하였다.

4. 정책제언

- **중학교로의 전이시기 청소년, 가족을 위한 다양한 행복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다양한 건강가정교육을 통해 부모가 긍정적 양육방식을 학습하도록 하고 청소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외부활동, 방과후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갖게 하는 동시에 청소년 스스로 독서할 수 있는 가정내, 학교, 지역사회 내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청소년 학업지원이나 학업스트레스 해소 방안도 지원될 필요가 있다.
-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맞춘 청소년정책을 사회자본, 문화자본의 지원으로 강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정내 사회자본은 물론 지역사회 내 사회자본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신뢰, 규범, 관계망 강화 및 가족생활교육, 개인역량교육 등 다양한 미시적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청소년 행복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에 대한 확대 노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수십 년 동안 강조되어 온 사회자본의 역할과 더불어 청소년에게 독서활동, 여행경험 등 문화자본이 가지는 중요성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되며 성적만족도로 인한 어려움을 가정내 역할강화, 독서활동, 여행경험 등의 확대 등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성별 또한 중요한 변인으로 지적된 바 성별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대적으로 행복의 초기치가 낮은 여자 청소년들을 위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 차

I. 서론	1
II. 이론적 배경	5
1. 행복 연구의 전반적 경향성	7
2.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	7
3.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과 행복	8
1) 사회자본과 행복	8
2) 문화자본과 행복	9
3) 경제자본과 행복	9
4. 연령과 행복	10
III. 연구방법	11
1. 연구문제	13
2.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14
3. 분석방법 및 분석 모형	14
4. 변인의 측정	15
IV. 연구결과	17
1. 연구대상 일반특성	20
2. 주요 변인자료	21
3. 상관관계	35
4. 연구모형 분석	37
1) 기초모형	39
2) 조건모형	42
V. 결론 및 제언	59
참고문헌	69

표 목차

〈표 IV-1〉 조사 참여여부	19
〈표 IV-2〉 연구대상의 일반특성	20
〈표 IV-3〉 생활만족도의 변화	22
〈표 IV-4〉 행복감의 변화	23
〈표 IV-5〉 학대적 양육방식의 변화	24
〈표 IV-6〉 방임적 양육방식의 변화	25
〈표 IV-7〉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의 변화	26
〈표 IV-8〉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의 변화	27
〈표 IV-9〉 등교일 독서시간의 변화	28
〈표 IV-10〉 비등교일 독서시간의 변화	29
〈표 IV-11〉 여행경험의 변화	30
〈표 IV-12〉 문화활동경험의 변화	31
〈표 IV-13〉 가족소득의 변화	32
〈표 IV-14〉 용돈의 변화	33
〈표 IV-15〉 성적만족도의 변화	34
〈표 IV-16〉 측정변인간 상관관계	35
〈표 IV-17〉 청소년 생활만족도 기초모형	40
〈표 IV-18〉 청소년 행복감 기초모형	41
〈표 IV-19〉 청소년 생활만족도 초기값에 대한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의 영향	46
〈표 IV-20〉 청소년 생활만족도 변화율에 대한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의 영향	47
〈표 IV-21〉 청소년 행복감 초기값에 대한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의 영향 ..	55
〈표 IV-22〉 청소년 행복감 변화율에 대한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의 영향 ..	56

그림 목차

【그림 IV-1】 생활만족도의 변화	22
【그림 IV-2】 행복감의 변화	23
【그림 IV-3】 학대적 양육방식의 변화	24
【그림 IV-4】 방임적 양육방식의 변화	25
【그림 IV-5】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의 변화	26
【그림 IV-6】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태도의 변화	27
【그림 IV-7】 등교일 독서시간의 변화	28
【그림 IV-8】 비등교일 독서시간의 변화	29
【그림 IV-9】 여행경험의 변화	30
【그림 IV-10】 문화활동 경험의 변화	31
【그림 IV-11】 가족소득의 변화	32
【그림 IV-12】 용돈의 변화	33
【그림 IV-13】 성적만족도의 변화	34
【그림 IV-14】 시간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변화	37
【그림 IV-15】 시간에 따른 행복감의 변화	38

제 I 장



서 론

제 I 장
서론

경제학자인 Richard Layard(2005)는 공공정책의 목표가 국가의 부, 또는 개인의 부로 표상되는 경제적 목표에서 복지감(well-being) 또는 행복(happiness)으로 표상되는 질적, 가치적 목표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어떻게 행복 연구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지를 제시하였으며 연장선상에서 정부가 최대다수를 위한 최대행복을 창조해야 한다는 본격적 논의에 불을 지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들은 일정 수준의 경제적 부를 축적한 국가에서 더 이상 경제적 성장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지적하면서(Easterlin, 1974, 2002; Ng, 2008에서 재인용) 행복을 설명하는 경제적 변인과 더불어 사회적, 문화적 환경 변인의 영향력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Bourdieu가 제시한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 개념은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환경 변인을 검토하는 중요한 이론적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Bourdieu, 1986).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이 청소년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은 다음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캐나다의 청소년 정책과 관련한 이론적 틀을 제시한 Verde(2010)는 청소년 연구를 위해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생활조건에 초점을 맞추는 전체적 접근이 필요하며 청소년이 사회, 문화, 경제 구조와 상황을 경험하는 객체일 뿐 아니라 생애과정을 통해 사회, 문화, 경제 체계를 형성하는 능동적 주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즉, 청소년 삶에 있어 청소년 개인의 역할, 기회와 위기 구조, 복지의 결과, 상호의존적 경로를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청소년의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의 역할을 규명하는 것이 청소년 개인의 역량강화, 지역사회 지원강화, 정부의 직접적 자원지원, 서비스 전달의 개입방향과 개입지점을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선행연구들은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입지점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김석환, 2014; 백병부·김경근, 2007).

본 연구는 청소년행복의 중요성에 기반하여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의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선행연구(Pacek & Radcliff, 2008; Veenhoven, 2007)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행복을 측정하는 변인을 주관적 복지감(subjective well-being)으로 사용하고 하위 영역으로 인지적 행복인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정서적 행복인 행복감(feeling of happiness)을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은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개인·가족 차원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개인·가정적 측면의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 변인은 사회자본(학대적 양육방식, 방임적 양육방식,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 문화자본(등교일 독서시간, 비등교일 독서시간, 여행 경험, 문화활동 경험), 경제자본(가족소득, 용돈)이다. 통제변인으로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행복, 삶의 질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된 변인 중 성별, 부모의 근로여부, 성적 만족도, 부모의 교육수준을 활용하였다. 일부 연구에서 부모의 교육수준을 가정내 문화자본으로 보는 시각이 있으나(김경근·변수용, 2007)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청소년 행복증진을 위한 개입지점을 제시하는 정책적 함의를 가진 변인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소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문화자본에 초점을 두는 것이 청소년 차원의 행복 증진 방안 모색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부모의 교육수준을 통제변인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초4패널 데이터의 3차년도(초4, 2012년), 4차년도(초5, 2013년), 5차년도(초6, 2014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¹⁾ SPSS for Window 20.0와 HLM 7.0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행복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떤 변화양상을 보이는가?

첫째,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은 청소년 행복의 초기값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시간에 따른 개별 청소년간의 행복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초4패널의 경우 현재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5차년간의 연구결과가 측정된 상태로 5차년도를 모두 연구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나 위계적 선행분석이 변인의 선행성을 가정하고 있으며 종속변인인 생활만족도와 행복감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에는 증가하다가 6학년 이후부터 감소되는 비선형성을 가지고 있어 감소 방향으로의 선형성이 나타나는 초등학교 6학년(3차년도, 2012년)부터 중학교 2학년(5차년도, 2014년)까지를 연구대상 기간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제 II 장

이론적 배경

1. 행복연구의 전반적 경향성
2.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
3.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과
행복
4. 연령과 행복

제 II 장 이론적 배경

1. 행복 연구의 전반적 경향성

지난 10여년 동안 심리학, 사회학 뿐 아니라 경제학, 공공정책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복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Ng, 2008). 순차로짓모델을 통해 행복을 연구한 Hayo(2007)는 행복 연구가 주로 특정 국가 내, 혹은 다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점에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수준 또는 거시적 정치·경제 수준 변인의 영향력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유사하다고 보고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보다 개선가능한 환경적 차원의 변인에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행복이라는 추상적 개념이 측정가능한 변인인지에 대해 초기 행복연구자들이 다양한 논의를 거친 결과 최근 행복 연구에서 Manski(2000) 등 다양한 연구자들은 ‘행복 변인이 체계적으로 질문하기만 한다면 상당히 일관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추출해 낼 수 있다’는데 동의하면서 이를 학술 연구의 주제로 빈번히 활용하고 있다(Ng, 2008에서 재인용). Goldbeck 등(2007)은 청소년기가 중요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는 발달시기임에도 청소년의 행복을 연구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2.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ourdieu(1986)는 사회자본을 ‘다양한 수준으로 제도화 되어 있는 지속적인 관계망 속에서 상호 면식과 인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총합’으로 정의하면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자원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동원할 수 있는 직간접적 인맥의 중요성에 집중한다. Coleman(1988)은 ‘특정한 사회 구조 및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신뢰감, 정보 획득의 채널, 규범’에 주목한다. 문화자본과 관련하여 Bourdieu(1973)은 ‘언어능력, 일반적인 문화적 인식, 미적 선호, 학교체제에 대한 정보, 졸업장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자원’으로 Lamont와 Lareau(1988)은 ‘태도나 선호, 공식적 지식, 행동, 소유물이나 졸업장 등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문화적, 사회적 선별을 위해 사용되는 제도화된 문화적 표식’으로 정의한다(백병부·김경근, 2007에서 재인용). 백병부·김경근(2007)은 한국 실정에 맞게 문화자본을 ‘가정 또는 학교에서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얻게 된 미술, 고전음악, 연극이나 박물관 관람, 문학이나 교양서적의 독서 등과 같은 고급문화적 취향과 행동 뿐만 아니라 이러한 취향과 행동에 걸맞는 물건과 학력의 소유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경제자본에 대해 Bourdieu(1986)는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돈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소유권의 형태로 제도화되어 있는 자본으로 토지, 공장,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들과 수입, 유산, 물질적 재화와 같은 경제적 재화의 총체’로 정의한다(백병부·김경근, 2007에서 재인용). 사회자본, 경제자본과 행복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비교적 다양한 연구가 축적된 반면 문화자본과 행복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나 최근 주5일제 수업의 실시로 인한 여가생활의 강조와 더불어 문화자본과 청소년 게임중독과의 관계(김석환, 2014), 문화자본과 청소년 학업성취와의 관계(백병부·김경근, 2007)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행복과 문화자본의 관련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과 행복

1) 사회자본과 행복

많은 연구들이 사회자본이 행복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Kawachi, Kim, Coutts, & Subramanian, 2004; Yip et al., 2007에서 재인용). Fowler와 Christakis(2008)는 1983년부터 2003년까지 4,739명을 대상으로 한 종단적 사회관계망 연구에서 사회자본의 중요한 요소로써 사회관계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행복한 사람, 특히 행복한 배우자, 형제, 이웃에게

둘러싸인 사람이 미래에 행복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하면서 행복에 있어 사회자본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Bruni(2006)는 행복과 가장 높은 상관성을 가지는 것은 사회자본의 중요한 요소인 대인관계라고 지적하고 있으며(Ng, 2008에서 재인용) 중국 농촌을 대상으로 구조적 사회자본으로써 조직의 멤버십 참여, 인지적 사회자본으로써 신뢰, 호혜성, 상호도움 정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Yip 등(2007)은 신뢰와 같은 인지적 사회자본은 개인수준에서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조직멤버십과 같은 구조적 사회자본은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2) 문화자본과 행복

문화자본과 행복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축적되지 못하였으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자본과 청소년 학업성취, 게임중독 등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문화자본과 행복간의 관련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문화자본과 청소년 학업성취와의 관련성 연구를 살펴보면 DiMaggio(1982)는 학생의 문화자본이 학업성취와 긴밀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반면 Dumais(2002)는 그러한 인과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보고하여 상반된 연구결과를 나타낸다. Kalmijin과 Kaaykamp(1996)은 부모의 문화자본이 다른 배경적 변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인종, 코호트에 관계 없이 교육성취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백병부·김경근, 2007에서 재인용). 청소년 문화자본을 여가만족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검토한 김석환(2014)은 여가만족으로 측정된 문화자본이 높아질수록 게임중독이 낮아진다는데 대부분 연구결과들이 일치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 문화자본이 높아질수록 청소년의 긍정적 측면인 행복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3) 경제자본과 행복

경제자본은 전통적으로 행복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꼽혀왔다. 이들은 빈곤이 개인의 행복을 저해하며 부의 축적이 개인의 행복을 높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제학자들 스스로 국가소득, 개인소득이 행복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GDP, 가구소득으로 대표되는 경제자본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행복 연구 전반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Ng, 2008). Winkelmann과 Winkelmann(1998)은 실업으

로 인한 경제자본의 하락이 낮은 행복과 매우 유의미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Frijters 등(2004)은 사람들이 현재의 소비수준이 행복감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여 경제자본에 대한 전통적 시각을 반영하는 한편(Ng, 2008에서 재인용) Layard(2005)는 경제자본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한다는 사고에는 변혁이 필요하며 때로는 경제자본의 성장이 환경을 파괴하여 행복을 감소시킬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여 경제자본의 행복에 대한 영향력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성을 대두시킨다(Ng, 2008에서 재인용). 관련하여 Coleman(1988)은 경제자본이나 문화자본의 결핍이 사회자본의 확충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석환, 2014에서 재인용).

4. 연령과 행복

대부분의 아동·청소년 연구들은 청소년기의 행복수준이 긍정적 범위 내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McCullough 등(2000)은 9-12학년에 있는 청소년 5,545 명 중 73%가 매우 만족하거나 즐거운 수준의 생활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연구결과가 다양한 국제비교연구와 특수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Proctor, Linley, & Maltby, 2009에서 재인용). 그러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는 청소년기가 시작해서 지속되는 동안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미국(Suldo & Huebner, 2004), 이스라엘(Ullman & Tatar, 2001), 한국(Park, 2005), 중국(Chang et al., 2003) 등의 국제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III 장

연구방법

1. 연구문제
2.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3. 분석방법 및 분석 모형
4. 변인의 측정

제 III 장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이 청소년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행복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떤 변화양상을 보이는지,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이 초기 청소년의 행복 변화율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이 초기 청소년간의 행복 변화의 차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행복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떤 변화양상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1-1] 청소년의 생활만족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떤 변화양상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1-2] 청소년의 행복감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떤 변화양상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은 청소년의 행복 초기값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1]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은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초기값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2]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은 청소년의 행복감 초기값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시간에 따른 개별 청소년간의 행복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1] 시간에 따른 개별 청소년간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2] 시간에 따른 개별 청소년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2.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초4패널 데이터의 3차년도(2012년), 4차년도(2013년), 5차년도(2014년) 데이터이며 각각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한다. 가정환경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보호자를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3. 분석방법 및 분석 모형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술통계분석, ANOVA, 상관관계 분석,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을 차례로 실시하였다. 기초자료로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주요변인자료로 행복,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을 제시하였다. 연구모형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실시하는 기술통계와 상관관계분석은 SPSS for Window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시간에 따른 변화함수를 추정하는 개별 청소년 내(within)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함수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청소년의 차이를 나타내는 개별 청소년 간(between)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HLM 7.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층모형인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단계 모형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개별 청소년의 변화를 2단계 모형으로 초기 청소년의 행복이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에 따라 개별 청소년간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위계적 선형모형은 데이터의 형태가 위계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상위 수준에 내포된(nested) 된 형태일 경우 유용한데 종단분석의 경우 개인이 시간에 내포되어 있어 위계적 선형모형이 적절하다. 종단분석을 하는 경우 선형 또는 비선형으로 분석하는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본 연구와 같이 관찰시점이 세 시점인 경우 선형임을 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찰시점이 적을수록 가능한 간명한 모형을 통해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된다(Raudenbush & Bryk, 2002; 홍세희·박언하·홍혜영, 2006에서 재인용).

4. 변인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으로 사회자본(학대적 양육방식, 방임적 양육방식,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 문화자본(등교일 독서시간, 비등교일 독서시간, 여행경험, 문화활동 경험), 경제자본(가족소득, 용돈)을 설정하였다. 통제변인으로는 성별, 부친의 근로여부, 부친의 교육수준, 성적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위에서 기술한 대로 주요변인인 행복은 행복 연구에서 행복의 측정개념으로 주로 활용(Proctor, Linley & Maltby, 2009) 되는 주관적 복지감을 활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주관적 복지감이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을 동시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인지적 행복인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와 정서적 행복인 행복감(feeling of happiness)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Pacek & Radcliff, 2008; Veenhoven, 2007)의 의견에 따라 행복의 측정개념인 주관적 복지감을 생활만족도와 행복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행복을 단일 문항 또는 적은 수의 문항으로 측정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논의들이 있어왔으나 최근의 행복 연구 대부분은 단일하고 직접적인 질문을 통해 이러한 주제를 측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단순한 질문은 일반적으로 더욱 복잡한 형식의 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평가되어 지고 있다(Veenhoven, 1993). 이러한 척도를 활용하여 행복의 평균값을 국가 간에 비교하는 시도 또한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등 대표적 행복연구 데이터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Pacek & Radcliff, 2008). 각 변인의 측정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활만족도는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라는 2개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값을 값이 높아질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도록 재부호화한 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누어 사용하였으며 두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70$ 으로 무난한 수준이었다.

행복감은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라는 1개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값을 값이 높아질수록 행복감이 높아지도록 재부호화하여 사용하였다.

학대적 양육방식은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보호자)께서는 정보 이상으로 야단을 치신다’,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무조건 때리려고 하신다’,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심하게 대하신 적이 많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의 4개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것을 값이 높아질수록 학대적 양육방식이 높아지도록 재부호화한 후 신뢰도 계수 검토(Cronbach's $\alpha=.838$) 후 특별히 문제가 되는 문항이 없어 4 개 문항을 합산한 후 문항수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방임적 양육방식은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다른 일(직장이나 바깥일)보다 나를 중요시 하신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 몸이나 옷, 이불 등이 깨끗하도록 항상 신경써 주신다',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가 많이 아프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해주신다'의 4개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문항을 값이 높아질수록 방임적 양육방식이 높아지도록 재부호화한 후 신뢰도 계수 검토(Cronbach's $\alpha=.779$) 후 특별히 문제가 있는 문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4개 문항을 합산한 후 문항수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은 방과후 보호자 부재시간을 1시간 미만, 1-2시간 정도, 3-4시간 정도, 4시간 이상으로 측정된 값을 1, 1.5, 3.5, 4로 재부호화하여 사용하였다.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부모님은 나의 친구에 대해' 모두 알고 계신다, 대부분 알고 계신다, 대부분 모르고 계신다, 전혀 모르고 계신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문항을 값이 높아질수록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재부호화한 후 사용하였다.

등교일 독서시간은 등교일 독서시간을 시간과 분으로 측정된 값을 분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비등교일 독서시간 또한 비등교일 독서시간을 시간과 분으로 측정된 값을 분으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여행경험은 가족 또는 단체와 연간 여행한 경험횟수로 측정하였다.

가족소득은 가구 연간 소득에 대한 질문을 활용하였으며 연간 소득을 만원을 단위로 하여 측정하였다.

용돈은 월평균 용돈을 만원을 단위로 하여 측정된 값을 활용하였다.

성별은 여자=0, 남자=1로 더미변인화 하여 사용하였다.

부의 근로여부는 일을 하고 있다가 1, 일을 하고 있지 않다가 0으로 더미변인화 하여 사용하였다.

성적만족도는 전체 성적에 대한 만족도를 매우 만족한다, 만족하는 편이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값을 값이 높을수록 성적만족도가 높아지도록 재부호화하여 사용하였다.

부의 교육수준은 중졸이하, 고졸이하를 '고졸이하', 전문대 졸, 대졸, 대학원 졸을 '대졸이상'으로 재부호화하여 고졸이하를 0, 대졸이상은 1로 더미변인화 하였다.

제 IV 장

연구결과

1. 연구대상 일반특성
2. 주요 변인자료
3. 상관관계
4. 연구모형 분석

제 IV 장 연구결과

초4 패널 조사 참여여부를 1차년도(2010년)부터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청소년 설문지 성공률은 1차년도 100.0%, 2차년도 95.2%, 3차년도 93.3%, 4차년도 88.0%, 5차년도 87.0%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보호자 설문지의 성공률 또한 1차년도 100.0%, 2차년도 94.2%, 3차년도 93.4%, 4차년도 88.4%, 5차년도 86.5%로 청소년 설문지의 성공률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3차년도(2012년), 4차년도(2013년), 5차년도(2015년)를 분석대상으로 활용하며 이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한다.

표 IV-1 조사 참여여부

구 분		초4 (2010년)	초5 (2011년)	초6 (2012년)	중1 (2013년)	중2 (2014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청소년	조사 성공	2378	2264	2219	2092	2070
		100.0%	95.2%	93.3%	88.0%	87.0%
	조사 실패	0	114	159	286	308
		0.0%	4.8%	6.7%	12.0%	13.0%
소계		2378	2378	2378	2378	2378
		100.0%	100.0%	100.0%	100.0%	100.0%
보호자	조사 성공	2378	2240	2221	2102	2058
		100.0%	94.2%	93.4%	88.4%	86.5%
	조사 실패	0	138	157	276	320
		0.0%	5.8%	6.6%	11.6%	13.5%
소계		2378	2378	2378	2378	2378
		100.0%	100.0%	100.0%	100.0%	100.0%

1. 연구대상 일반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3차년도(초6, 2012년)부터 5차년도(중1, 2014년)까지 조사에
응한 연구대상 청소년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IV-2>와 같다.

표 IV-2 연구대상의 일반특성

구 분		초6 (2012년)	중1 (2013년)	중2 (2014년)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여자	1052	994	982
		47.4%	47.5%	47.4%
	남자	1167	1098	1088
		52.6%	52.5%	52.6%
소계		2219	2092	2070
		100.0%	100.0%	100.0%
부의 근로여부	일을 하고 있지 않다	33	40	40
		1.6%	2.0%	2.1%
	일을 하고 있다	2057	1931	1887
		98.4%	98.0%	97.9%
소계		2090	1971	1927
		100.0%	100.0%	100.0%
부의 교육수준	중졸 이하	58	54	53
		2.8%	2.7%	2.8%
	고졸	783	751	743
		37.4%	38.2%	38.5%
	전문대 졸	229	204	207
		11.0%	10.4%	10.8%
	대졸	897	843	810
		43.0%	42.8%	42.1%
	대학원 졸	121	117	112
		5.8%	5.9%	5.8%
소계		2088	1969	1925
		100.0%	100.0%	100.0%
합계		2090	1971	1927
		100.0%	100.0%	100.0%

성별로는 초6(2012년) 여자 47.4%, 남자 52.6%, 중1(2013년) 여자 47.5%, 남자 52.5%, 중2(2014년) 여자 47.4%, 남자 52.6%으로 남자의 비율이 약간 높았으나 남녀 성비가 대략 1: 1에 달했다. 부의 근로여부를 살펴보면 초6(2012년)에는 98.4%, 중1(2013년)에는 98.0%, 중2(2014년)에는 97.9%의 아버지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초6(2012년)에는 59.8%, 중1(2013년)에는 59.1%, 중2(2014년)에는 58.7%가 전문대졸 이상임을 알 수 있었다.

2. 주요 변인자료

주요 변인인 행복(생활만족도, 행복감), 사회자본(학대적 양육방식, 방임적 양육방식,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 문화자본(등교일 독서시간, 비등교일 독서시간, 여행경험, 문화활동 경험), 경제자본(가족소득, 용돈)에 대해 3년간 변화의 통계적 유의성을 파악하였다.

1)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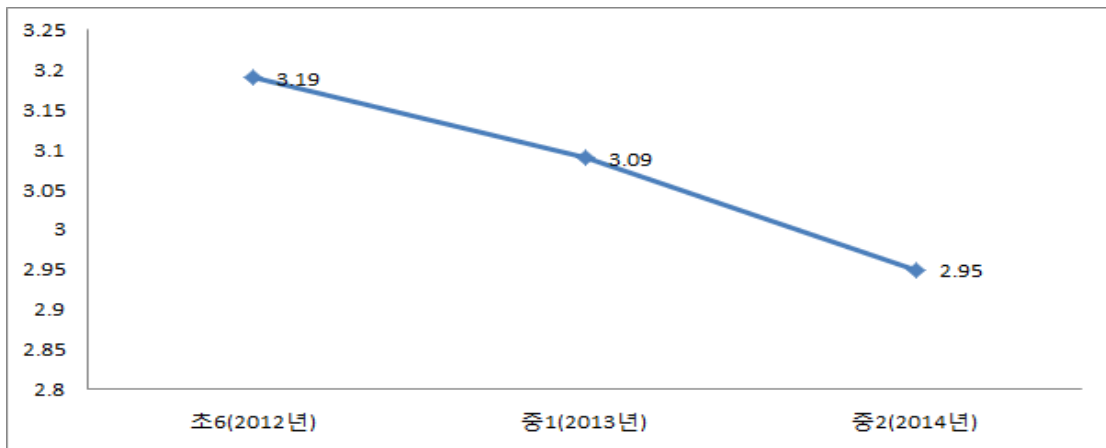
(1) 생활만족도

초4패널 청소년의 3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생활만족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초4패널 청소년의 생활만족도는 초등학교 6학년(2012년)에 3.19, 중학교 1학년(2013년)에 3.09, 중학교 2학년(2014년)에 2.95로 감소하여 청소년기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생활만족도가 감소한다는 선행연구(Chang et al., 2003; Park, 2005; Suldo & Huebner, 2004; Ullman & Tartar, 2001)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p < .001$) 사후검증 결과 학년별로 초등학교 6학년 때보다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보다 중학교 2학년 때 생활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V-3 생활만족도의 변화

구분		초6 (2012년)	중1 (2013년)	중2 (2014년)	합계
생활만족도	빈도	2218	2092	2070	2218
	평균	3.19	3.09	2.95	3.08
	표준편차	.690	.659	.623	0.66
	최소값	1.00	1.00	1.00	1.00
	최대값	4.00	4.00	4.00	4.00
F 값		68.964***			
Scheffe		초6>중1>중2			

*p<.05, **p<.01, ***p<.001



【그림 IV-1】 생활만족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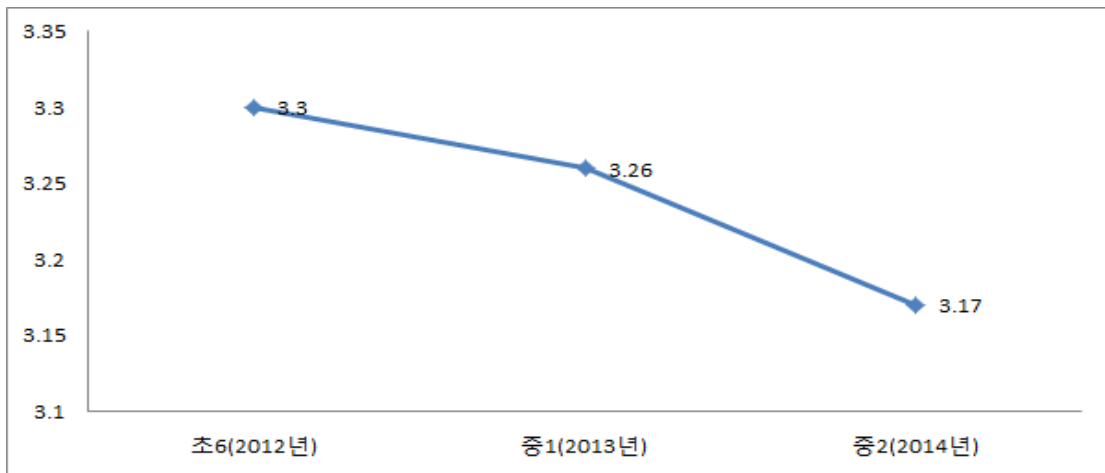
(2) 행복감

초4패널 청소년의 3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행복감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표 IV-4>와 같다. 초등학교 6학년인 3차조사에서는 3.30, 중학교 1학년인 4차조사에서는 3.26, 중학교 2학년인 5차조사에서는 3.17로 지속적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으며 조사시점별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표 IV-4 행복감의 변화

구 분		초6 (2012년)	중1 (2013년)	중2 (2014년)	합계
행복감	빈도	2219	2092	2070	2219
	평균	3.30	3.26	3.17	3.29
	표준편차	.727	.682	.652	.722
	최소값	1.00	1.00	1.00	1.00
	최대값	4.00	4.00	4.00	4.00
F 값		20.497***			
Scheffe		초6, 중1> 중2			

*p<.05, **p<.01, ***p<.001



【그림 IV-2】 행복감의 변화

2) 사회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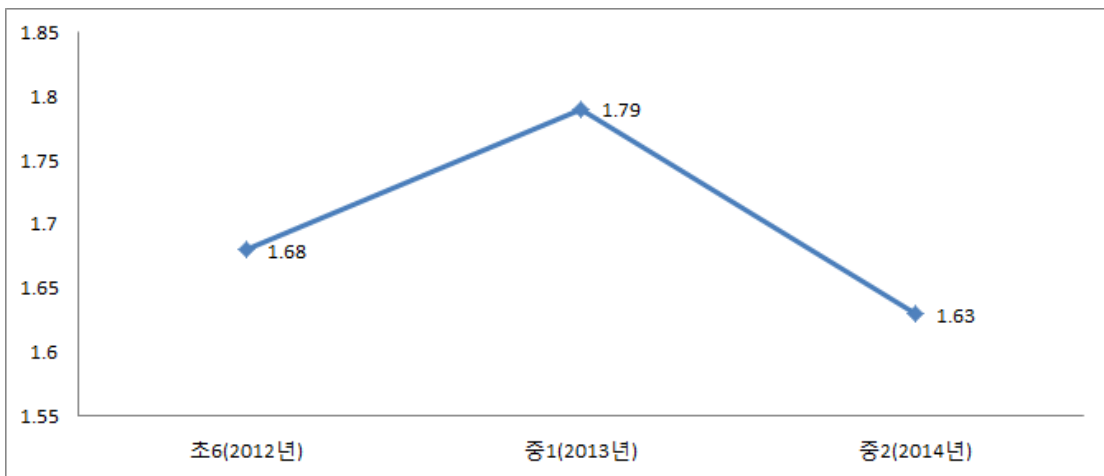
(1) 양육방식: 학대, 방임

학대적 양육방식의 변화를 살펴보면 초6(2012년) 1.68, 중1(2013년) 1.79, 중2(2014년) 1.63으로 중학교 1학년때 증가했다가 중학교 2학년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차수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p<.001$) 중학교 1학년때 학대가 일어나는 경험이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학교 2학년때보다 유의미하게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V-5 학대적 양육방식의 변화

구분		초6 (2012년)	중1 (2013년)	중2 (2014년)	합계
학대적 양육방식	빈도	2214	2092	2070	2214
	평균	1.68	1.79	1.63	1.72
	표준편차	.641	.690	.622	.654
	최소값	1.00	1.00	1.00	1.00
	최대값	4.00	4.00	4.00	4.00
F 값		30.563***			
Scheffe		중1> 초6, 중2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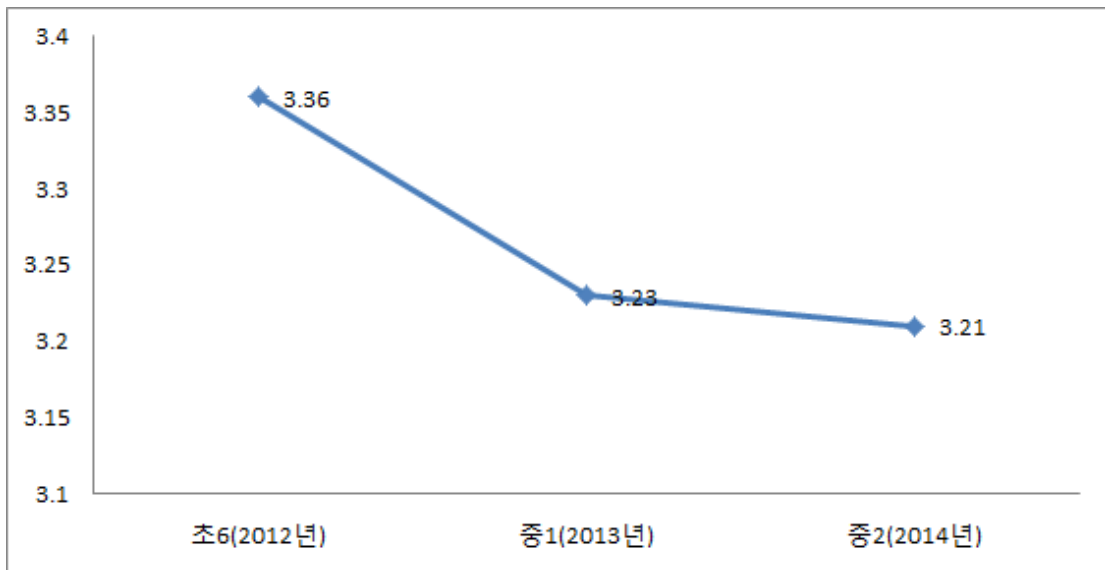
【그림 IV-3】 학대적 양육방식의 변화

방임적 양육방식의 변화를 살펴보면 초6(2012년) 3.36, 중1(2013년) 3.23, 중2(2014년) 3.21로 방임적 양육태도가 차수가 증가할수록 다소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차수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p<.001$) 초등학교 6학년 때보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부터 부모의 방임적 태도가 다소 줄어든다고 청소년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6 방임적 양육방식의 변화

구 분		초6 (2012년)	중1 (2013년)	중2 (2014년)	합계
방임적 양육방식	빈도	2218	2090	2070	2218
	평균	3.36	3.23	3.21	3.31
	표준편차	.594	.529	.544	.563
	최소값	1.00	1.00	1.00	1.00
	최대값	4.00	4.00	4.00	4.00
F 값		47.330***			
Scheffe		초6) 중1, 중2			

* $p<.05$, ** $p<.01$, *** $p<.001$



【그림 IV-4】 방임적 양육방식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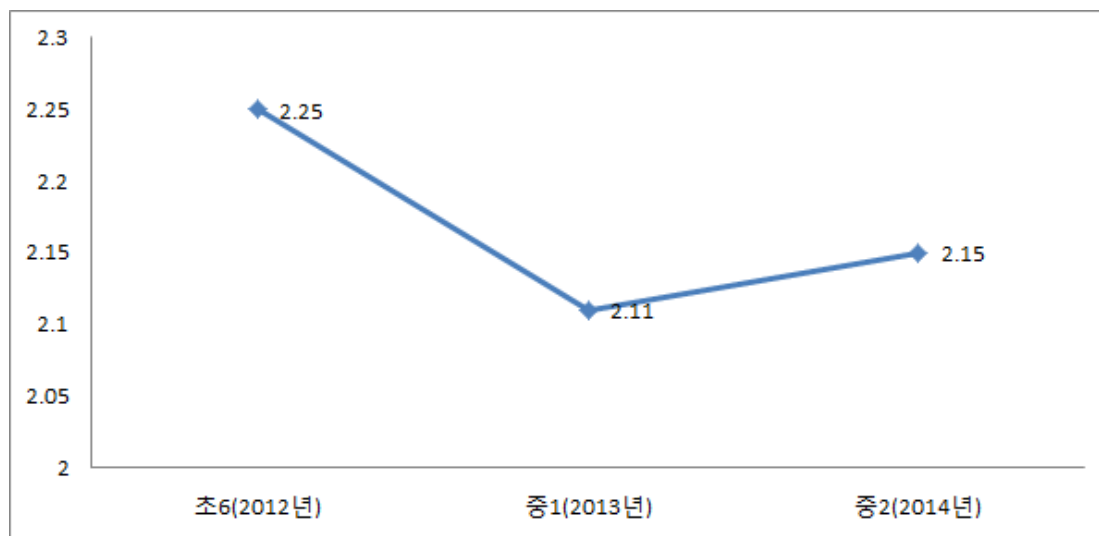
(2)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을 살펴보면 초6(2012년) 2.25, 중1(2013년) 2.11, 중2(2014년) 2.15로 중학교 1학년때 약간 감소했다가 중학교 2학년때 다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차수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p<.01$) 초등학교 6학년때보다 중학교 1학년, 2학년때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이 유의미하게 적었다.

표 IV-7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의 변화

구분		초6 (2012년)	중1 (2013년)	중2 (2014년)	합계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	빈도	999	981	1011	1011
	평균	2.25	2.11	2.15	2.24
	표준편차	1.102	1.032	1.041	1.101
	최소값	1.0	1.0	1.0	1.0
	최대값	4.0	4.0	4.0	4.0
F 값		4.638**			
Scheffe		초6> 중1, 중2			

* $p<.05$, ** $p<.01$, *** $p<.001$



【그림 IV-5】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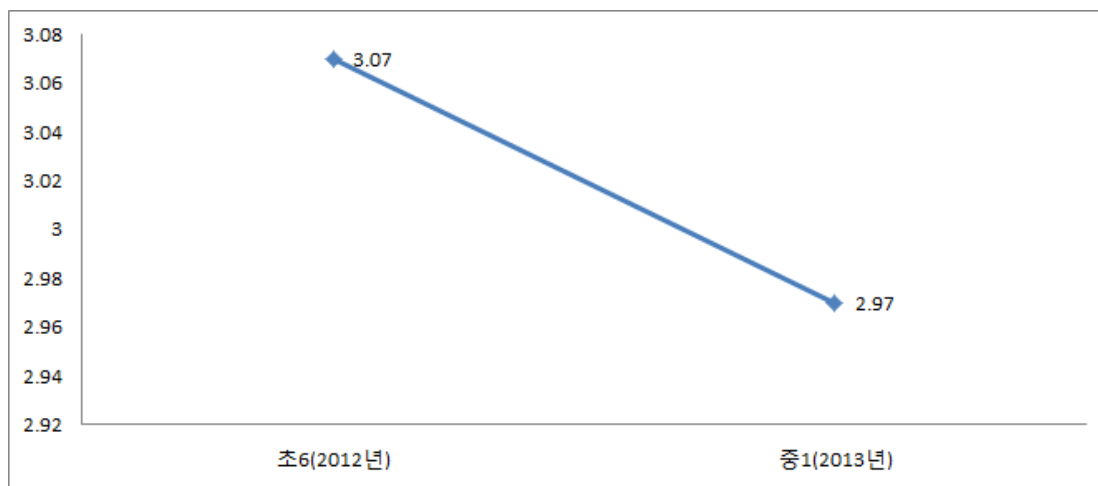
(3)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살펴보면 초6(2012년) 3.07, 중1(2013년) 2.97로 차수가 증가할수록 유의미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p<.001$)로 중학교 청소년기가 또래관계가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커지는 시기이니 만큼 부모의 친구들에 대한 관심이 제고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8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의 변화

구 분		초6 (2012년)	중1 (2013년)	합계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태도	빈도	2219	2092	2219
	평균	3.07	2.97	3.05
	표준편차	.699	.671	.704
	최소값	1	1	1
	최대값	4	4	4
F 값		23,806***		
Scheffe		초6)중1		

* $p<.05$, ** $p<.01$, *** $p<.001$



【그림 IV-6】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태도의 변화

3) 문화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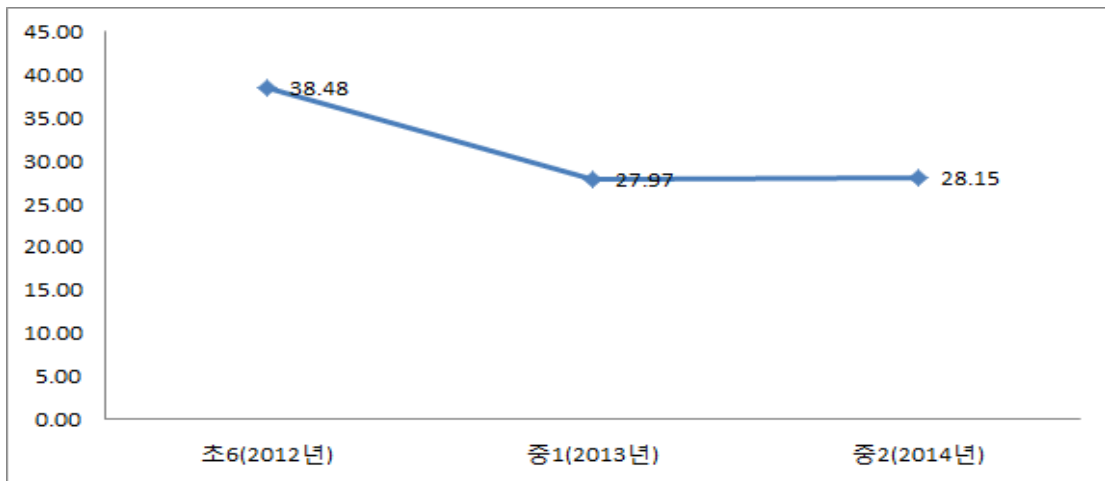
(1) 독서시간: 등교일, 비등교일

등교일 독서시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초6(2012년) 38.48분, 중1(2013년) 27.97분, 중2(2014년) 28.15분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차수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p<.001$) 초등학교 6학년때보다 중학교 1학년, 2학년때 등교일 독서시간이 유의미하게 적었다.

표 IV-9 등교일 독서시간의 변화

구 분		초6 (2012년)	중1 (2013년)	중2 (2014년)	합계
등교일 독서시간	빈도	2196	2068	2064	2196
	평균	38.48	27.97	28.15	39.40
	표준편차	38.148	37.992	39.330	41.337
	최소값	0	0	0	0
	최대값	390	360	360	390
F 값		52.564***			
Scheffe		초6> 중1, 중2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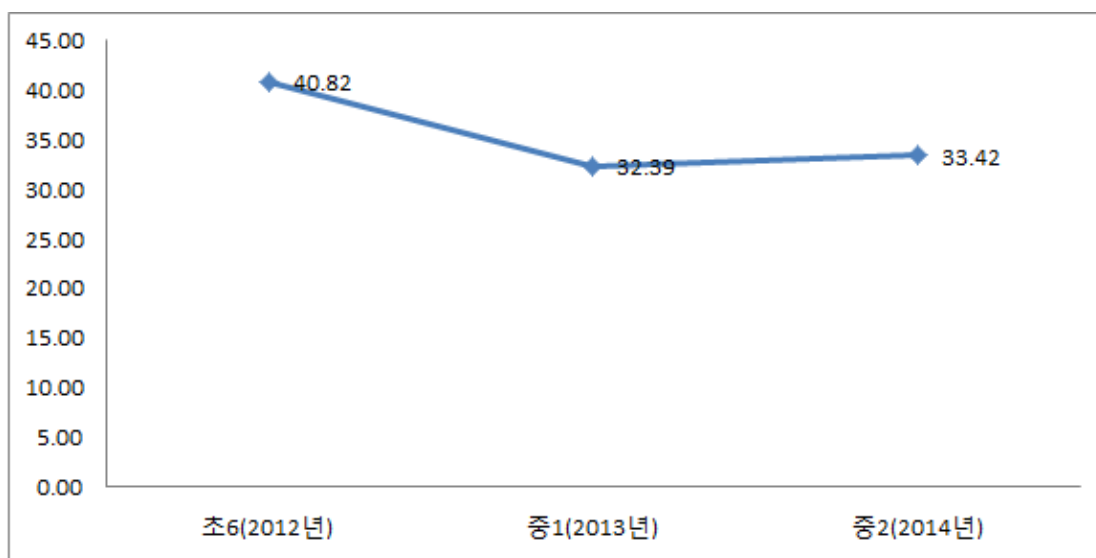
【그림 IV-7】 등교일 독서시간의 변화

비등교일 독서시간을 살펴보면 초6(2012년) 40.82시간, 중1(2013년) 32.39시간, 중2(2014년) 33.42시간으로 초등학교 6학년때보다 중학교 1학년때 감소한 것이 중학교 2학년때 약간 증가하기는 하나 중학교 1학년, 2학년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고 초등학교 6학년때보다 중학교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비등교일 독서시간이 적음을 알 수 있다($p<.001$).

표 IV-10 비등교일 독서시간의 변화

구 분		초6 (2012년)	중1 (2013년)	중2 (2014년)	합계
비등교일 독서시간	빈도	2203	2081	2067	2203
	평균	40.82	32.39	33.42	43.42
	표준편차	48.657	47.532	49.818	52.619
	최소값	0	0	0	0
	최대값	420	630	480	630
F 값		19.304***			
Scheffe		초6>중1, 중2			

* $p<.05$, ** $p<.01$, *** $p<.001$



【그림 IV-8】 비등교일 독서시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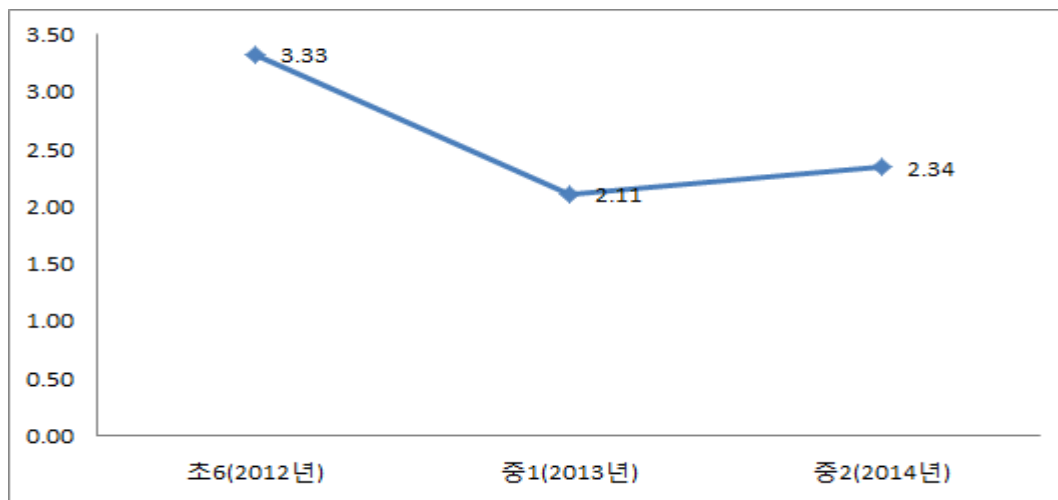
(2) 여행경험

가족 또는 단체로 여행한 연간 경험을 살펴보면 초6(2012년) 3.33회, 중1(2013년) 2.11회, 중2(2014년) 2.34회로 초등학교 6학년때보다 중학교 1학년, 2학년때 가족 또는 단체로 여행한 연간 경험이 유의미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p<.001$).

표 IV-11 여행경험의 변화

구 분		초6 (2012년)	중1 (2013년)	중2 (2014년)	합계
여행경험	빈도	2215	2092	2069	2215
	평균	3.33	2.11	2.34	2.89
	표준편차	4.446	3.153	3.752	4.214
	최소값	0	0	0	0
	최대값	50	30	50	50
F 값		61.202***			
Scheffe		초6>중1, 중2			

* $p<.05$, ** $p<.01$, *** $p<.001$



【그림 IV-9】 여행경험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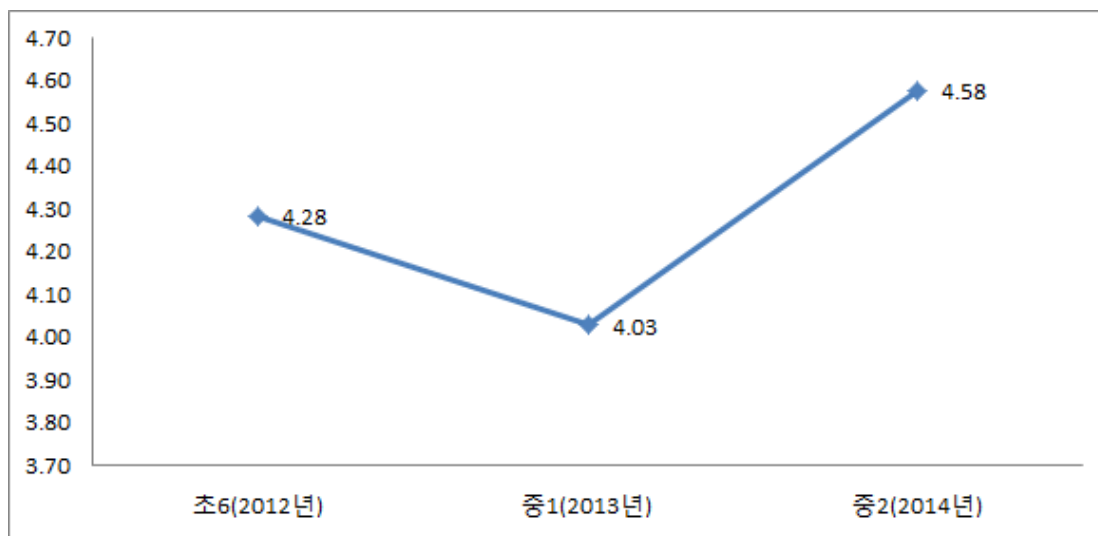
(3) 문화활동경험

문화활동 경험의 변화를 살펴보면 초6(2012년)에 연간 4.28회, 중1(2013년)에 연간 4.03회, 중2(2014년)에 연간 4.58회로 중학교 1학년때 감소했다가 중학교 2학년때 다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차수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사후검증 결과 중학교 1학년보다 중학교 2학년때 유의미한 차이로 문화활동 경험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p<.05$).

표 IV-12 문화활동경험의 변화

구 분		초6 (2012년)	중1 (2013년)	중2 (2014년)	합계
문화활동 경험	빈도	2211	2091	2070	2211
	평균	4.28	4.03	4.58	4.17
	표준편차	5.572	5.587	6.966	5.628
	최소값	0	0	0	0
	최대값	50	50	100	100
F 값		4.277*			
Scheffe		중1)중2			

* $p<.05$, ** $p<.01$, *** $p<.001$



【그림 IV-10】 문화활동 경험의 변화

4) 경제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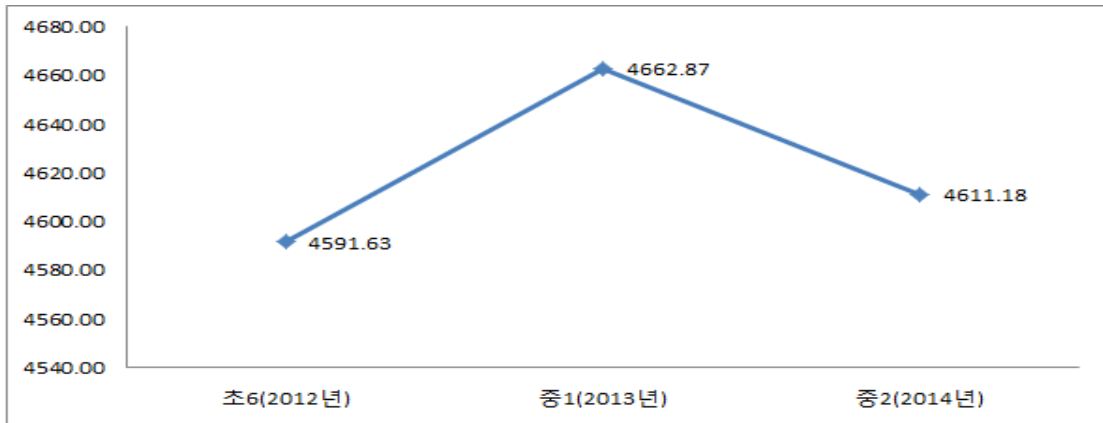
(1) 가족소득

연간 가족소득의 변화를 살펴보면 초6(2012년) 4591.63만원, 중1(2013년) 4662.87만원, 중2(2014년) 4611.18만원으로 증가와 감소를 나타내고 있으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 가족소득의 변화

구 분		초6 (2012년)	중1 (2013년)	중2 (2014년)	합계
가족소득	빈도	2174	2051	1991	2174
	평균	4591.63	4662.87	4611.18	4532.48
	표준편차	2767.654	2754.731	2220.477	2681.807
	최소값	0	100	150	0
	최대값	60000	50000	20000	60000
F 값		.419			

*p<.05, **p<.01, ***p<.001



【그림 IV-11】 가족소득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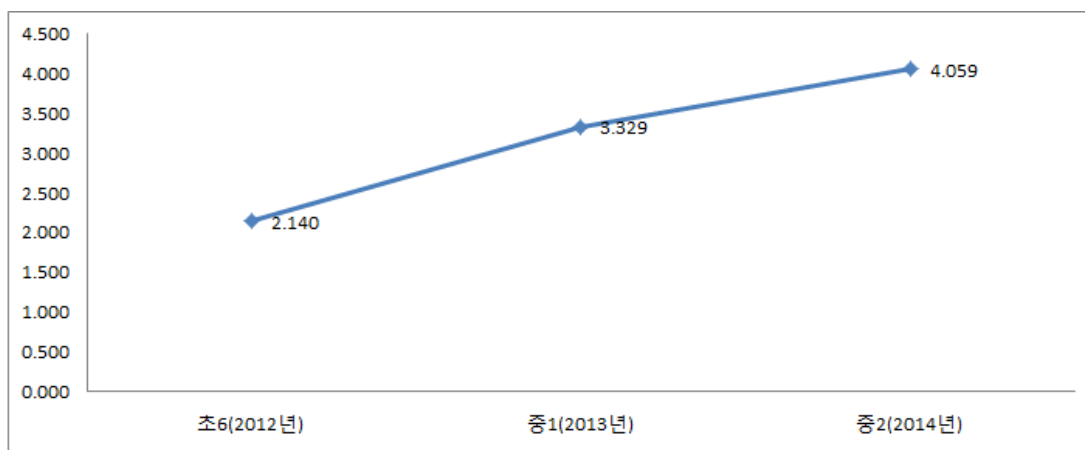
(2) 용돈

월간 용돈의 변화를 살펴보면 초6(2012년)에 약 2만1천원, 중1(2013년) 약 3만3천원, 중2(2014년)에 약 4만원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p<.001$). 초등학교 6학년때 보다 중학교 1학년때, 중학교 1학년때보다 중학교 2학년때 유의미하게 용돈이 증가하였다.

표 IV-14 용돈의 변화

구 분		초6 (2012년)	중1 (2013년)	중2 (2014년)	합계
용돈 (단위:만원)	빈도	2215	2067	1719	2215
	평균	2.140	3.329	4.059	3.099
	표준편차	1.6290	2.7280	3.9526	2.9388
	최소값	.0	.0	.5	.0
	최대값	20.0	40.0	50.0	50.0
F 값		232.546***			
Scheffe		초6<중1<중2			

* $p<.05$, ** $p<.01$, *** $p<.001$



【그림 IV-12】 용돈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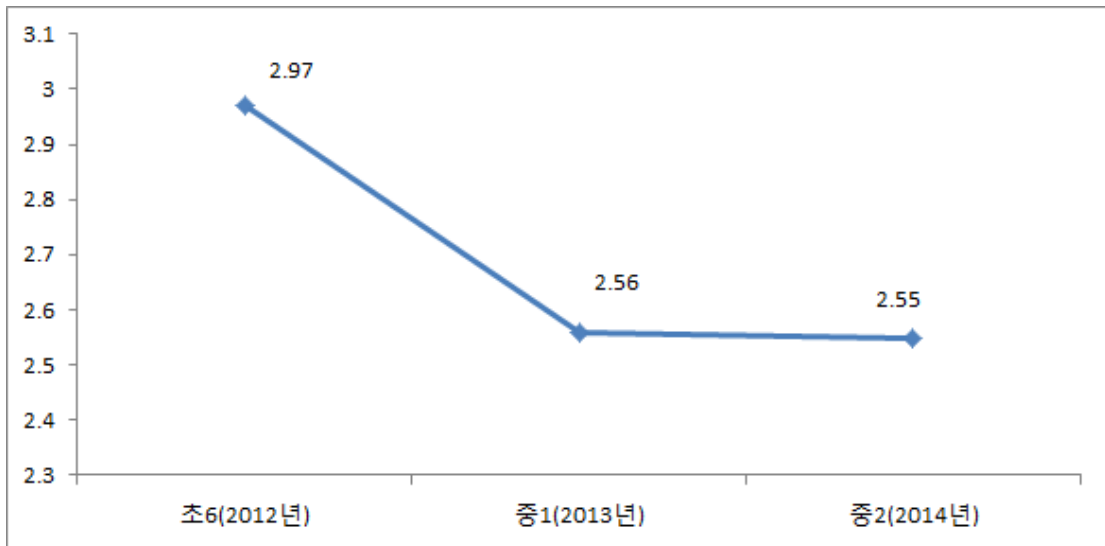
5) 성적 만족도

성적 만족도를 살펴보면 초6(2012년) 2.97, 중1(2013년) 2.56, 중2(2014년) 2.55로 연령이 증가할 수록 전체적인 성적만족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있어($p<.001$) 이로 인한 청소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초등학교 6학년 때보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유의미하게 성적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었다.

표 IV-15 성적만족도의 변화

구 분		초6 (2012년)	중1 (2013년)	중2 (2014년)	합계
성적만족도	빈도	2214	2090	2068	2214
	평균	2.97	2.56	2.55	2.70
	표준편차	.742	.770	.774	.786
	최소값	1	1	1	1
	최대값	4	4	4	4
F 값		209.614***			
Scheffe		초6>중1, 중2			

* $p<.05$, ** $p<.01$, *** $p<.001$



【그림 IV-13】 성적만족도의 변화

3. 상관관계

각 측정변인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 <표 IV-16>과 같다. 행복의 하위변인으로 생활만족도와 행복감 간에는 .748의 상관성($p<.001$)이 존재하여 비교적 높은 상관성을 보이기는 하나 다중공선성을 검토하는 지표인 VIF 지수가 10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나타나지 않아 행복의 인지적, 정서적 측면으로써 생활만족도와 행복감을 동시에 검토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IV-16 측정변인간 상관관계

변인		종속변인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		통제변인			
		생활만족도	행복감	학대적 양육방식	방인적 양육방식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태도	등교일 독서시간	비등교일 독서시간	여행경험	문화활동 경험	가족소득	용돈	성별	부의 근로여부	성적만족도	부의 교육수준
종속변인	생활만족도	1															
	행복감	.748***	1														
사회자본	학대적 양육방식	-.156***	-.196***	1													
	방인적 양육방식	.349***	.375***	-.211***	1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	.000	-.026	.039*	-.038*	1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태도	.148***	.150***	-.161***	.258***	-.054**	1										
문화자본	등교일 독서시간	.068***	.071***	-.031**	.107***	-.014	.054***	1									
	비등교일 독서시간	.057***	.065***	-.053***	.115***	-.042**	.072***	.625***	1								
	여행 경험	.088***	.073***	-.049***	.135***	-.044**	.113***	.117***	.113***	1							
	문화활동 경험	.052***	.064***	-.051***	.110***	-.030*	.077***	.065***	.080***	.293***	1						
경제자본	가족 소득	.041***	.046***	-.047***	.063***	-.132***	.060***	.035***	.055***	.120***	.097***	1					
	용돈	-.039**	-.028*	.007	-.053***	.086***	-.016	-.037**	-.051***	-.030*	.013	.044***	1				
통제변인	성별 (0=여자, 1=남자)	.124***	.093***	.136***	.003	.028	-.134***	-.028**	-.032***	-.025**	-.021*	-.027**	.002	1			
	부의 근로여부 (0=없고, 1=있고)	.025**	.037***	-.019	.027*	-.032*	.021	-.014	.002	.028**	.027**	.120***	.002	-.010	1		
	성적 만족도	.285***	.281***	-.108***	.212***	-.045**	.118***	.090**	.089***	.085***	.039***	.059***	-.073***	.069***	.038***	1	
	부의 교육수준 (0=고졸이하, 1=고졸이상)	.022*	.041***	-.073***	.128***	-.104***	.090***	.085***	.118***	.116***	.102***	.297***	-.016	-.055***	.059***	.068***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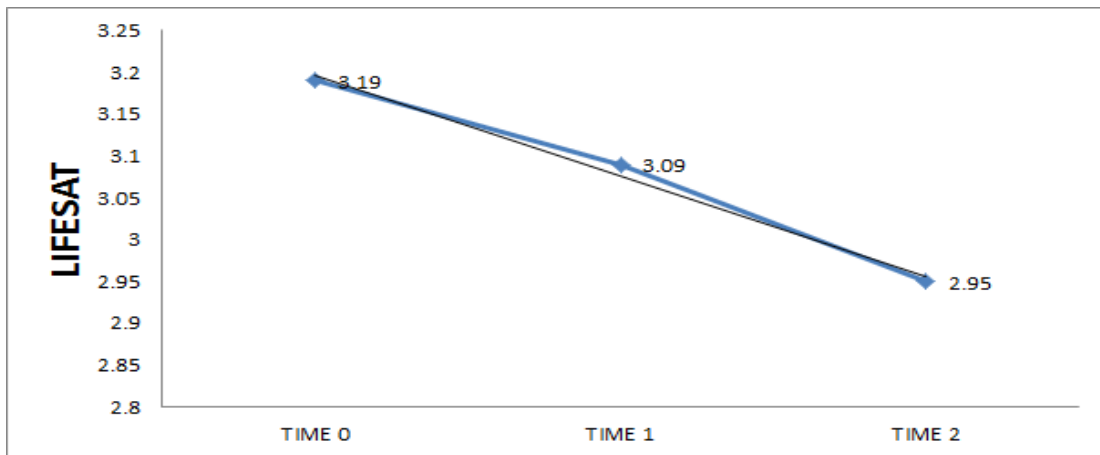
사회자본 중 학대적 양육방식은 생활만족도, 행복감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p<.001$), 방임적 양육방식과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생활만족도, 행복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p<.001$)를 나타내고 있었다. 문화자본의 하위변인으로 등교일 독서시간, 비등교일 독서시간, 여행경험, 문화활동은 모두 생활만족도, 행복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며($p<.001$), 경제자본의 하위변인 중 가족소득은 생활만족도, 행복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는데 반해($p<.001$), 용돈은 생활만족도, 행복감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p<.001$). 통제변인과 생활만족도, 행복감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별, 부의 근로보호여부, 성적만족도, 부의 교육수준 모두 생활만족도, 행복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p<.001$). 상관관계 결과만으로 보았을 때 학대적 양육방식이 강해질수록, 용돈이 많아질수록 생활만족도, 행복감이 낮아지며, 방임적 양육방식이 강해질수록, 등교일 독서시간이 길어질수록, 비등교일 독서시간이 길어질수록, 여행경험이 많을수록, 문화활동 빈도가 높아질수록, 가족소득이 많아질수록,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이, 아버지가 근로하고 있는 경우, 성적만족도가 높아질수록, 부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생활만족도, 행복감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4. 연구모형 분석²⁾

기초모형 분석과 조건모형 분석을 하기에 앞서 청소년 행복의 연령 증가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³⁾.

[연구문제 1] 청소년의 행복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떤 변화양상을 보이는가?

시간에 따른 생활만족도를 초6(2012년), 중1(2013년), 중2(2014년)을 Time 0, 1, 2로 부여하여 각 조사시점별 평균값을 기준으로 변화양상을 살펴본 결과 생활만족도는 초4패널 청소년이 초등학교 6학년인 시점에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인 시점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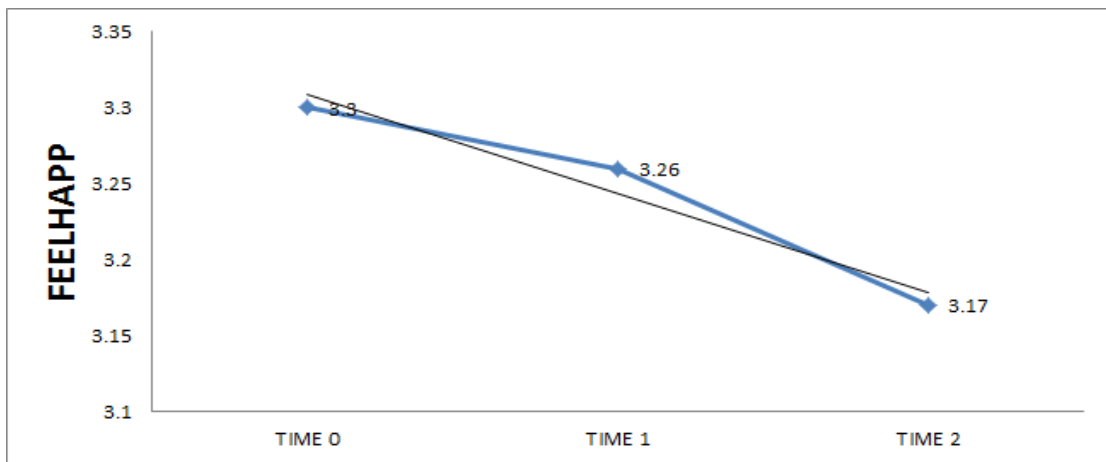


【그림 IV-14】 시간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변화

2) HLM 7.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구모형 분석을 하기 전에 결측치를 계열평균으로 대체(imputation)하였다.

3) HLM 7.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Line plot을 그린 결과는 다양한 선이 혼재되어 다소 혼란스러운 바, 별도로 시간(Time=0, 1, 2)별 생활만족도, 행복감 변화 평균을 도식화하고 추세선을 추가하였다.

다음으로 시간에 따른 행복감을 역시 초6(2012년), 중1(2013년), 중2(2014년)을 Time 0, 1, 2로 부여하여 각 조사시점별 평균값을 기준으로 변화양상을 살펴본 결과 또한 초등학교 6학년 시점에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인 시점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ime 0, 1, 2 시점에서 기울기는 다르나 비교적 선형에 가까운 형태를 띄고 있어 선형성 가정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고 분석에 투입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IV-15】 시간에 따른 행복감의 변화

1) 기초모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생활만족도, 행복감 변화를 추정하고 그 변화에 대한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해 위계적 선형 모형(HLM)을 활용한 잠재성장모형을 사용한다. 다층모형에서는 1단계 모형을 통해서 청소년 생활만족도, 행복감의 변화함수를 추정하고 2단계 모형을 통해서 변화에 있어 개별 청소년간의 차이를 설명한다.

즉,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행복감이 변화하고 있는지 만약 변화하고 있다면 어떠한 일정한 경향을 갖는지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Y_{ti}^{(4)} = \pi_{0i} + \pi_{1i}*(TIME_{ti}) + e_{ti}$$

위와 같은 모형을 시간의 경과 외에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행복감을 예측하는 어떠한 예측변인도 추가하지 않은 모형이라는 의미에서 무조건 모형(unconditional model)이라 한다. 무조건 모형에서 시간에 따른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행복감 변화율의 무선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 다른 예측변인을 추가할 수 있다. 대상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행복감 무조건 모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생활만족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청소년 생활만족도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형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시간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를 각각 0, 1, 2로 코딩하였으며 절편(β_{00})은 처음 시점, 즉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평균 생활만족도 수준을 의미한다. 선형모형의 식은 다음과 같다.

4) 모형에 나타난 변인명은 “TIME 변화, LifeSat 생활만족도, FeelHapp 행복감, AbusePS 학대적 양육방식, AbandonPS 방임적 양육방식, AltSchoolTm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 ParenConc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 ReadTSd 등교일 독서시간, ReadTNSd 비등교일 독서시간, Travel 여행경험, CultAct 문화활동경험, INCOME 가족소득, PockMon 용돈, GENDER 성별, FatWork 부의 근로여부, GradeSat 성적만족도, FatEdu 부의 교육수준”을 의미한다.

1수준 모형

$$LIFESAT_{ti} = \pi_{0i} + \pi_{1i}*(TIME_{ti}) + e_{ti}$$

2수준 모형

$$\pi_{0i} = \beta_{00} + r_{0i}$$

$$\pi_{1i} = \beta_{10} + r_{1i}$$

선형모형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평균 생활만족도 수준은 3.191($p < .001$)이며 평균변화율은 -0.105($p < .001$)로 나타나 청소년 생활만족도 수준이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해마다 -0.105점씩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생활만족도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무선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며(모두 $p < .001$) 생활만족도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있어서 개인차가 존재하여, 조건모형을 통해 이러한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을 투입하여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IV-17 청소년 생활만족도 기초모형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
초기값(β_{00})	3.191	0.013	245.282***
기울기(시간)(β_{10})	-0.105	0.007	-14.320***
무선효과	표준편차	변량	χ^2
초기값(r_0)	0.471	0.222	5310.358***
기울기(시간)(r_1)	0.148	0.022	2860.358***
Level 1(e)	0.46516	0.21637	

* $p < .05$, ** $p < .01$, *** $p < .001$

(2) 행복감

다음으로 행복감에 대한 선형모형의 식은 다음과 같다.

1수준 모형

$$FEELHAPPti = \pi 0i + \pi 1i*(TIMEti) + eti$$

2수준 모형

$$\pi 0i = \beta 00 + r0i$$

$$\pi 1i = \beta 10 + r1i$$

선형모형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평균 행복감 수준은 3.308($p<.001$)이며 평균변화율은 -0.058($p<.001$)로 나타나 청소년 행복감 수준이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해마다 -0.058점씩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행복감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무선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모두 $p<.001$) 행복감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있어서 개인차가 존재하며, 조건모형을 통해 이러한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을 투입하여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IV-18 청소년 행복감 기초모형

고정효과	계수	표준오차	t
초기값(β_{00})	3.308	0.013	244.068***
기울기(시간)(β_{10})	-0.058	0.008	-7.298***
무선효과	표준편차	변량	χ^2
초기값(r_0)	0.474	0.225	4906.744***
기울기(시간)(r_1)	0.162	0.026	2872.998***
Level 1(e)	0.504	0.254	

* $p<.05$, ** $p<.01$, *** $p<.001$

2) 조건모형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행복감은 초등학교 6학년 시기부터 중학교 2학년 시기까지 선형으로 감소하는 패턴을 나타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에 있어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을 투입한 조건모형을 통하여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조건모형은 개별 청소년의 초기상태와 변화율에 있어서 청소년간 차이가 나타나는 요인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모형이다. 이를 위해 1단계 독립변인인 시간에 따른 변화율의 개인차를 통제된 상태에서 어떤 변인이 개별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행복감 변화함수의 초기값에 따른 변화율을 예측하는지 검증한다. 본 연구에서 2단계 모형을 통해 투입되는 변인은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 관련변인과 통제변인이다. 조건모형 검토를 통해 다음 연구문제를 검증할 수 있다.

[연구문제 2]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은 청소년의 초기 행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1]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은 청소년의 초기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2]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은 초기 청소년의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시간에 따른 개별 초기 청소년간의 행복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1] 시간에 따른 개별 초기 청소년간의 생활만족도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2] 시간에 따른 개별 초기 청소년간의 행복감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또한 본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 행복감 초기치, 변화율에 대한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 통제변인의 영향을 보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활만족도, 행복감에 대한 조건모형을 [모형1] 통제변인만을 투입한 모형, [모형2] 통제변인과 사회자본만을 투입한 모형, [모형3] 통제변인과 문화자본만을 투입한 모형, [모형 4] 통제변인과 경제자본만을 투입한 모형, [모형5] 통제변인,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 통제변인을 모두 투입한 모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에 대한 1단계와 2단계 조건모형의 식은 다음과 같다. 모형 I은 통제변인인 성별, 부의 근로여부, 성적만족도, 부의 교육수준만을 투입한 것이며 모형 II는 통제변인과 사회자본인 학대적 양육방식, 방임적 양육방식,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투입한 것이다. 모형 III은 통제변인과 문화자본인 등교일 독서시간, 비등교일 독서시간, 여행경험, 문화활동 경험을 투입한 것이며 모형 IV는 통제변인과 경제자본인 가족소득, 용돈을 투입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형 V는 통제변인,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을 모두 투입한 식이다.

[모형I]

1수준 모형

$$LIFESAT_{it} = \pi_{0i} + \pi_{1i}*(TIME_{it}) + e_{it}$$

2수준 모형

$$\pi_{0i} = \beta_{00} + \beta_{01}*(GENDER_i) + \beta_{02}*(FATWORK_i) + \beta_{03}*(GRADESAT_i) + \beta_{04}*(FATEDU_i) + r_{0i}$$

$$\pi_{1i} = \beta_{10} + \beta_{11}*(GENDER_i) + \beta_{12}*(FATWORK_i) + \beta_{13}*(GRADESAT_i) + \beta_{14}*(FATEDU_i) + r_{1i}$$

[모형II]

1수준 모형

$$LIFESAT_{ti} = \pi_{0i} + \pi_{1i}*(TIME_{ti}) + e_{ti}$$

2수준 모형

$$\begin{aligned} \pi_{0i} = & \beta_{00} + \beta_{01}*(ABUSEP_{Si}) + \beta_{02}*(ABANDONP_{i}) + \beta_{03}*(AFTSCHOO_{i}) + \beta_{04}*(PARENCON_{i}) \\ & + \beta_{05}*(GENDER_{i}) + \beta_{06}*(FATWORK_{i}) + \beta_{07}*(GRADESAT_{i}) \\ & + \beta_{08}*(FATEDU_{i}) + r_{0i} \end{aligned}$$

$$\begin{aligned} \pi_{1i} = & \beta_{10} + \beta_{11}*(ABUSEP_{Si}) + \beta_{12}*(ABANDONP_{i}) + \beta_{13}*(AFTSCHOO_{i}) + \beta_{14}*(PARENCON_{i}) \\ & + \beta_{15}*(GENDER_{i}) + \beta_{16}*(FATWORK_{i}) + \beta_{17}*(GRADESAT_{i}) \\ & + \beta_{18}*(FATEDU_{i}) + r_{1i} \end{aligned}$$

[모형III] 통제변인+문화자본

1수준 모형

$$LIFESAT_{ti} = \pi_{0i} + \pi_{1i}*(TIME_{ti}) + e_{ti}$$

2수준 모형

$$\begin{aligned} \pi_{0i} = & \beta_{00} + \beta_{01}*(READTSD_{i}) + \beta_{02}*(READTNSD_{i}) + \beta_{03}*(TRAVEL_{i}) + \beta_{04}*(CULTACT_{i}) \\ & + \beta_{05}*(GENDER_{i}) + \beta_{06}*(FATWORK_{i}) + \beta_{07}*(GRADESAT_{i}) + \beta_{08}*(FATEDU_{i}) \\ & + r_{0i} \end{aligned}$$

$$\begin{aligned} \pi_{1i} = & \beta_{10} + \beta_{11}*(READTSD_{i}) + \beta_{12}*(READTNSD_{i}) + \beta_{13}*(TRAVEL_{i}) + \beta_{14}*(CULTACT_{i}) \\ & + \beta_{15}*(GENDER_{i}) + \beta_{16}*(FATWORK_{i}) + \beta_{17}*(GRADESAT_{i}) \\ & + \beta_{18}*(FATEDU_{i}) + r_{1i} \end{aligned}$$

[모형IV] 통제변인+경제자본

1수준 모형

$$\text{LIFESAT}_{ti} = \pi_{0i} + \pi_{1i}(\text{TIME}_{ti}) + \text{eti}$$

2수준 모형

$$\begin{aligned} \pi_{0i} = & \beta_{00} + \beta_{01}(\text{INCOME}_{i}) + \beta_{02}(\text{POCKMON}_{i}) + \beta_{03}(\text{GENDER}_{i}) + \beta_{04}(\text{FATWORK}_{i}) \\ & + \beta_{05}(\text{GRADESAT}_{i}) + \beta_{06}(\text{FATEDU}_{i}) + r_{0i} \end{aligned}$$

$$\begin{aligned} \pi_{1i} = & \beta_{10} + \beta_{11}(\text{INCOME}_{i}) + \beta_{12}(\text{POCKMON}_{i}) + \beta_{13}(\text{GENDER}_{i}) + \beta_{14}(\text{FATWORK}_{i}) \\ & + \beta_{15}(\text{GRADESAT}_{i}) + \beta_{16}(\text{FATEDU}_{i}) + r_{1i} \end{aligned}$$

[모형V] 통제변인+사회자본+문화자본+경제자본

1수준 모형

$$\text{LIFESAT}_{ti} = \pi_{0i} + \pi_{1i}(\text{TIME}_{ti}) + \text{eti}$$

2수준 모형

$$\begin{aligned} \pi_{0i} = & \beta_{00} + \beta_{01}(\text{ABUSEPS}_{i}) + \beta_{02}(\text{ABANDONP}_{i}) + \beta_{03}(\text{AFTSCHOO}_{i}) + \beta_{04}(\text{PARENCON}_{i}) \\ & + \beta_{05}(\text{READTSD}_{i}) + \beta_{06}(\text{READTNSD}_{i}) + \beta_{07}(\text{TRAVEL}_{i}) \\ & + \beta_{08}(\text{CULTACT}_{i}) + \beta_{09}(\text{INCOME}_{i}) + \beta_{010}(\text{POCKMON}_{i}) + \beta_{011}(\text{GENDER}_{i}) \\ & + \beta_{012}(\text{FATWORK}_{i}) + \beta_{013}(\text{GRADESAT}_{i}) + \beta_{014}(\text{FATEDU}_{i}) + r_{0i} \end{aligned}$$

$$\begin{aligned} \pi_{1i} = & \beta_{10} + \beta_{11}(\text{ABUSEPS}_{i}) + \beta_{12}(\text{ABANDONP}_{i}) + \beta_{13}(\text{AFTSCHOO}_{i}) + \beta_{14}(\text{PARENCON}_{i}) \\ & + \beta_{15}(\text{READTSD}_{i}) + \beta_{16}(\text{READTNSD}_{i}) + \beta_{17}(\text{TRAVEL}_{i}) \\ & + \beta_{18}(\text{CULTACT}_{i}) + \beta_{19}(\text{INCOME}_{i}) + \beta_{110}(\text{POCKMON}_{i}) + \beta_{111}(\text{GENDER}_{i}) \\ & + \beta_{112}(\text{FATWORK}_{i}) + \beta_{113}(\text{GRADESAT}_{i}) + \beta_{114}(\text{FATEDU}_{i}) + r_{1i} \end{aligned}$$

표 IV-19

청소년 생활만족도 초기값에 대한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의 영향

고정효과	모형 I (통제변인)		모형 II (통제변인, 사회자본)		모형 III (통제변인, 문화자본)		모형 IV (통제변인, 경제자본)		모형 V (통제변인,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초기값(μ 0)										
초기값(β 0)	3.088	0.082	3.134	0.078	3.085	0.080	3.107	0.084	3.144	0.079
통제변인										
성별(β 01)	0.252	0.026	0.291	0.025	0.256	0.026	0.253	0.026	0.293	0.025
부의 근로여부(β 02)	-0.037	0.083	-0.073	0.078	-0.029	0.081	-0.050	0.084	0.077	0.078
성적만족도(β 03)	0.239	0.019	0.176	0.019	0.235	0.019	0.238	0.019	0.174	0.019
부의 교육수준(β 04)	0.012	0.027	-0.040	0.025	0.000	0.027	0.001	0.028	-0.050	0.027
사회자본										
학대적 양육방식(β 05)			3.134	0.078					0.272	0.027
방임적 양육방식(β 06)			0.274	0.027					-0.129	0.023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β 07)			0.026	0.016					0.027	0.016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β 08)			0.086	0.020					0.084	0.020
문화자본										
등교일 독서시간(β 09)					0.001	0.000			0.000	0.000
비등교일 독서시간(β 010)					-0.000	0.000			-0.000	0.000
여행경험(β 011)					0.007	0.003			0.003	0.003
문화활동경험(β 012)					-0.001	0.002			0.003	0.002
경제자본										
가족소득(β 013)							0.000	0.000	0.000	0.000
용돈(β 014)							-0.004	0.007	0.002	0.007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고정효과	모형 I (통제변인)		모형 II (통제변인, 사회자본)		모형 III (통제변인, 문화자본)		모형 IV (통제변인, 경제자본)		모형 V (통제변인,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기울기(γ 1)										
초기값(β 10)	-0.171	0.051	-0.190	0.047	-0.188	0.050	-0.169	0.051	-0.184	0.048
통제변인										
성별(β 11)	-0.040	0.015	-0.048	0.015	-0.042	0.015	-0.040	0.015	-0.049	0.015
부의 근로여부(β 12)	0.093	0.051	0.106	0.047	0.087	0.050	0.091	0.051	0.099	0.048
성적만족도(β 13)	-0.067	0.011	-0.046	0.011	-0.065	0.011	-0.067	0.011	-0.046	0.011
부의 교육수준(β 14)	-0.008	0.016	0.008	0.016	-0.001	0.016	-0.008	0.016	0.010	0.016
사회자본										
학대적 양육방식(β 15)			-0.111	0.016					-0.108	0.016
방임적 양육방식(β 16)			0.032	0.013					0.030	0.013
방과후 보호자 없이 자라는 시간(β 17)			-0.022	0.010					-0.021	0.010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β 18)			-0.014	0.012					-0.013	0.012
문화자본										
등교일 독서시간(β 19)					-0.000	0.000			-0.000	0.000
비등교일 독서시간(β 110)					0.000	0.000			0.000	0.000
여행경험(β 111)					-0.003	0.001			-0.001	0.001
문화활동경험(β 112)					0.000	0.001			0.000	0.001
경제자본										
가족소득(β 113)							0.000	0.000	0.000	0.000
용돈(β 114)							0.005	0.004	0.003	0.004
무신호과	표준 편차	변량	x 2	표준 편차	변량	x 2	표준 편차	변량	x 2	표준 편차
초기값(r 0)	0.417	0.174	4670.956***	0.363	0.132	4105.556***	0.415	0.172	4640.732***	0.363
기울기(r 1)	0.138	0.019	2794.431***	0.118	0.014	2676.418***	0.136	0.018	2779.840***	0.118
Level 1(e)	0.465	0.216		0.465	0.216		0.465	0.216		0.465
							0.465	0.216		0.465
							0.174	4667.130***	0.131	4092.750***
							0.138	2792.365***	0.118	2668.239***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초기값에 대한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의 영향은 <표 IV-19>에 나타나 있다. 분석 결과 통제변인만을 투입했을 때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초기값에 성별($p<.001$), 성적만족도($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의 근로여부, 부의 교육수준은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초기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제변인만을 가지고 살펴볼 경우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이, 성적만족도가 높을수록 청소년 생활만족도 초기값이 높았다.

통제변인과 사회자본을 함께 투입했을 때에도 성별($p<.001$)과 성적만족도($p<.001$)는 청소년 생활만족도 초기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부의 근로여부, 부의 교육수준은 여전히 청소년 생활만족도 초기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사회자본과 관련하여 학대적 양육방식($p<.001$), 방임적 양육방식($p<.001$),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p<.001$)은 청소년 생활만족도 초기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은 청소년 생활만족도 초기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통제변인과 사회자본을 통해 살펴볼 경우 학대적 양육방식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방임적 양육방식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높을수록 청소년 생활만족도 초기값이 높게 나타났다. 단, 여기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상관관계 분석에서 학대적 양육방식이 생활만족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p<.001$)가 나타났던데 반해 조건모형 분석에서는 유의미한 + 방향의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점이다($p<.001$). 이는 방임적 양육방식이 상관관계 분석에서 생활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조건모형 분석에서도 유의미한 + 방향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방임적 양육방식이 강해질수록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청소년 생활만족도 초기값이 높은 것과 대조적으로 학대적 양육방식이 강해질수록 청소년 생활만족도 초기값이 높아진 것은 앞에서 살펴본 <표 IV-5> 학대적 양육방식의 변화에서 학대적 양육방식 변화가 선형이 아니고 증가했다 감소하는 비선형의 형태를 이룬 것과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변인이 선형이 아닌 경우 비선형(제곱의 형태 등)의 형태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변인의 특성이 제곱을 통해 +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이 사항은 본 연구의 제한사항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다. 추후 연구에서는 비선형 변인의 경우 별도의 추가 분석을 통해 보다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통제변인과 문화자본을 함께 투입한 경우 통제변인 중 성별($p<.001$)과 성적만족도($p<.001$)는 청소년 생활만족도 초기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부의 근로여부, 부의 교육수준은 여전히 청소년 생활만족도 초기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문화자본 중 등교일

독서시간($p<.05$), 여행경험($p<.05$)은 청소년 생활만족도 초기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비등교일 독서시간, 문화활동경험은 청소년 생활만족도 초기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즉, 통제변인과 문화자본만을 가지고 살펴볼 경우 여자 청소년보다 남자 청소년이, 성적만족도가 높을수록, 등교일 독서시간이 길수록, 가족 또는 단체 여행경험이 많을수록 청소년 생활만족도 초기값이 높았다. 이는 청소년 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문화자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음으로 통제변인과 경제자본을 함께 투입했을 때에는 성별($p<.001$), 성적만족도($p<.001$)는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부의 근로여부, 부의 교육수준은 여전히 청소년 생활만족도 초기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제자본인 가족소득, 용돈은 청소년 생활만족도 초기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정 수준의 경제수준 이상에서는 경제자본이 행복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선행연구 결과(Easterlin, 1974, 2002; Ng, 2008에서 재인용)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결과는 이제까지의 경제자본 지원 위주의 청소년 행복증진 정책, 프로그램을 문화자본, 사회자본 확대, 지원 위주의 청소년 행복증진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인,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을 함께 투입한 모형에서 통제변인 중 성별($p<.001$), 성적만족도($p<.001$)는 여전히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자본 중에서도 학대적 양육방식($p<.001$), 방임적 양육방식($p<.001$),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p<.001$)이 여전히 청소년 생활만족도 초기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통제변인, 사회자본 변인, 문화자본변인, 경제자본변인을 모두 함께 투입했을 때 문화자본의 영향력이 축소되어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문화자본이 사회자본은 물론 경제자본이나 부의 교육수준과 같은 다른 측면의 문화자본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논의와 연결시켜 볼 때(백병부·김경근, 2007) 사회자본, 경제자본이 함께 투입됨으로써 그 영향력이 희석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해 볼 수 있겠다. 또한 특이할 사항은 모든 변인을 한꺼번에 투입했을 때 방임적 양육방식의 영향력이 +에서 -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즉, 통제변인과 사회자본만을 투입했을 때에는 방임적 양육방식이 강할수록 청소년 생활만족도 초기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문화자본과 경제자본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에는 방임적 양육방식이 강할수록 청소년 생활만족도 초기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문화자본, 경제자본이 통제되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부모의 관심이 많아질수록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초기값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하겠다. 학대적 양육방식에 대한 해석은 앞에서 제시한 학대적 양육방식의 비선형성을 고려할 때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사이의 3년간의 생활만족도 변화율에 대한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의 영향은 <표 IV-20>에 나타나 있다. 통제변인만을 투입한 첫 번째 모형에서 성별($p<.001$), 성적만족도($p<.001$)는 부적인 효과를 부의 근로여부($p<.10$)는 약한 정적인 효과를 나타내 남성 청소년보다 여성 청소년이, 성적만족도가 낮을수록 생활만족도 변화율이 높으며 아버지가 일을 하고 있는 청소년이 생활만족도 변화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여성 청소년, 성적만족도가 낮을수록, 아버지가 근로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이 생활만족도 초기치가 원래 낮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활만족도 변화(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일 수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⁵⁾.

통제변인, 사회자본을 투입한 모형에서도 여전히 통제변인 중 성별($p<.001$), 성적만족도($p<.001$)는 부적인 효과를 부의 근로여부는 정적인 효과($p<.001$)를 나타내고 있으며 사회자본 중에서는 학대적 양육방식,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은 부적인 효과를($p<.001$), 방임적 양육방식은 정적인 효과($p<.001$)를 나타내고 있어 학대적 양육방식이 강할수록,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청소년 생활만족도 변화율이 낮아지고 방임적 양육방식이 강할수록 청소년 생활만족도 변화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통제변인과 문화자본을 투입한 모형에서는 앞에 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통제변인 중 성별($p<.001$), 성적만족도($p<.001$)는 부적인 효과를 부의 근로여부($p<.10$)는 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며 문화자본 중에서는 등교일 독서시간($p<.05$)과 여행경험($p<.10$)이 부적인 효과를 나타내 등교일 독서시간이 길수록 여행경험이 많을수록 청소년 생활만족도 변화율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통제변인과 경제자본을 투입한 모형에서도 통제변인의 영향은 유의성 여부와 방향 측면에서 변경된 것이 없으며 경제자본은 초기치 검증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족소득, 용돈 모두 청소년 생활만족도 변화율에 유의미한 효과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생활만족도의 초기치와 변화율 모두에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인,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을 모두 투입한 모형에서는 통제변인 중 성별($p<.05$)과 성적만족도($p<.001$)는 청소년 생활만족도 변화율에 부적 효과를 부의 근로여부($p<.05$)는 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부의 교육수준은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사회자본 중에서는 학대적 양육방식($p<.001$)과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p<.05$)이 부적 효과를 방임적 양육방식($p<.05$)은 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었으며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5) 추후 연구에서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 초기치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각 변인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관심은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지 못하였다. 문화자본 중에서는 등교일 독서시간이 청소년 생활만족도 변화율에 부적인 영향($p<.10$)을 미치고 있었으며 비등교일 독서시간, 여행경험, 문화활동 경험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경제자본은 가족소득과 용돈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컨대, 통제변인,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을 모두 투입한 모형에서 남자보다 여자 청소년이, 성적만족도가 높을수록 학대적 양육방식이 높아질수록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등교일 독서시간이 길수록 청소년 생활만족도 변화율이 낮아지며 아버지가 근로하고 있는 경우 방임적 양육방식이 강할수록 청소년 생활만족도 변화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모든 변인을 투입했을 경우 영향력이 사라지는 경우는 사회자본 중 여행경험으로 통제변인과 문화자본만을 투입한 모형에서는 여행경험이 많을수록 청소년 생활만족도 변화율이 낮아졌던 데 반해($p<.10$) 통제변인,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을 모두 투입한 모형에서는 여행경험이 청소년 생활만족도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 사회자본, 경제자본 등 다른 변인이 여행경험이 청소년 생활만족도 변화율에 미치는 효과를 희석했을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2) 행복감

행복감에 대한 1단계와 2단계 조건모형의 식은 다음과 같다. 모형 I은 통제변인인 성별, 부의 근로여부, 성적만족도, 부의 교육수준만을 투입한 것이며 모형 II는 통제변인과 사회자본인 학대적 양육방식, 방임적 양육방식,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투입한 것이다. 모형 III은 통제변인과 문화자본인 등교일 독서시간, 비등교일 독서시간, 여행경험, 문화활동 경험을 투입한 것이며 모형 IV는 통제변인과 경제자본인 가족소득, 용돈을 투입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형 V는 통제변인,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을 모두 투입한 식이다.

[모형1] 통제변인

1수준 모형

$$FEELHAPP_{ti} = \pi_{0i} + \pi_{1i}*(TIME_{ti}) + e_{ti}$$

2수준 모형

$$\pi_{0i} = \beta_{00} + \beta_{01}*(GENDER_i) + \beta_{02}*(FATWORK_i) + \beta_{03}*(GRADESAT_i) + \beta_{04}*(FATEDU_i) + r_{0i}$$

$$\pi_{1i} = \beta_{10} + \beta_{11}*(GENDER_i) + \beta_{12}*(FATWORK_i) + \beta_{13}*(GRADESAT_i) + \beta_{14}*(FATEDU_i) + r_{1i}$$

[모형II] 통제변인+사회자본

1수준 모형

$$FEELHAPP_{ti} = \pi_{0i} + \pi_{1i}*(TIME_{ti}) + e_{ti}$$

2수준 모형

$$\pi_{0i} = \beta_{00} + \beta_{01}*(ABUSEPS_i) + \beta_{02}*(ABANDONP_i) + \beta_{03}*(AFTSCHOO_i) + \beta_{04}*(PARENCON_i) + \beta_{05}*(GENDER_i) + \beta_{06}*(FATWORK_i) + \beta_{07}*(GRADESAT_i) + \beta_{08}*(FATEDU_i) + r_{0i}$$

$$\pi_{1i} = \beta_{10} + \beta_{11}*(ABUSEPSi) + \beta_{12}*(ABANDONPi) + \beta_{13}*(AFTSCHOOi) + \beta_{14}*(PARENCONi) + \beta_{15}*(GENDERi) + \beta_{16}*(FATWORKi) + \beta_{17}*(GRADESATi) + \beta_{18}*(FATEDUi) + r_{1i}$$

[모형 III] 통제변인+문화자본

1수준 모형

$$FEELHAPPti = \pi_{0i} + \pi_{1i}*(TIMEti) + eti$$

2수준 모형

$$\begin{aligned}\pi_{0i} &= \beta_{00} + \beta_{01}*(READTSDi) + \beta_{02}*(READTNSDi) + \beta_{03}*(TRAVELi) + \beta_{04}*(CULTACTi) \\ &\quad + \beta_{05}*(GENDERi) + \beta_{06}*(FATWORKi) + \beta_{07}*(GRADESATi) + \beta_{08}*(FATEDUi) + r_{0i} \\ \pi_{1i} &= \beta_{10} + \beta_{11}*(READTSDi) + \beta_{12}*(READTNSDi) + \beta_{13}*(TRAVELi) + \beta_{14}*(CULTACTi) \\ &\quad + \beta_{15}*(GENDERi) + \beta_{16}*(FATWORKi) + \beta_{17}*(GRADESATi) + \beta_{18}*(FATEDUi) + r_{1i}\end{aligned}$$

[모형 IV] 통제변인+경제자본

1수준 모형

$$FEELHAPPti = \pi_{0i} + \pi_{1i}*(TIMEti) + eti$$

2수준 모형

$$\begin{aligned}\pi_{0i} &= \beta_{00} + \beta_{01}*(INCOMEi) + \beta_{02}*(POCKMONi) + \beta_{03}*(GENDERi) + \beta_{04}*(FATWORKi) \\ &\quad + \beta_{05}*(GRADESATi) + \beta_{06}*(FATEDUi) + r_{0i} \\ \pi_{1i} &= \beta_{10} + \beta_{11}*(INCOMEi) + \beta_{12}*(POCKMONi) + \beta_{13}*(GENDERi) + \beta_{14}*(FATWORKi) \\ &\quad + \beta_{15}*(GRADESATi) + \beta_{16}*(FATEDUi) + r_{1i}\end{aligned}$$

[모형 V] 통제변인+사회자본+문화자본+경제자본

1수준 모형

$$FEELHAPP_{ti} = \pi_{0i} + \pi_{1i}*(TIME_{ti}) + e_{ti}$$

2수준 모형

$$\begin{aligned} \pi_{0i} &= \beta_{00} + \beta_{01}*(ABUSEPS_i) + \beta_{02}*(ABANDONP_i) + \beta_{03}*(AFTSCHOO_i) + \beta_{04}*(PARENCON_i) + \beta_{05}*(READTSD_i) + \beta_{06}*(READTNSD_i) + \beta_{07}*(TRAVEL_i) \\ &+ \beta_{08}*(CULTACT_i) + \beta_{09}*(INCOME_i) + \beta_{010}*(POCKMON_i) + \beta_{011}*(GENDER_i) \\ &+ \beta_{012}*(FATWORK_i) + \beta_{013}*(GRADESAT_i) + \beta_{014}*(FATEDU_i) + r_{0i} \\ \pi_{1i} &= \beta_{10} + \beta_{11}*(ABUSEPS_i) + \beta_{12}*(ABANDONP_i) + \beta_{13}*(AFTSCHOO_i) + \beta_{14}*(PARENCON_i) + \beta_{15}*(READTSD_i) + \beta_{16}*(READTNSD_i) + \beta_{17}*(TRAVEL_i) \\ &+ \beta_{18}*(CULTACT_i) + \beta_{19}*(INCOME_i) + \beta_{110}*(POCKMON_i) + \beta_{111}*(GENDER_i) \\ &+ \beta_{112}*(FATWORK_i) + \beta_{113}*(GRADESAT_i) + \beta_{114}*(FATEDU_i) + r_{1i} \end{aligned}$$

고정효과	모형 I (통제변인)		모형 II (통제변인, 사회자본)		모형 III (통제변인, 문화자본)		모형 IV (통제변인, 경제자본)		모형 V (통제변인,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				
	계수	표준 오차	t	계수	표준 오차	t	계수	표준 오차	t	계수	표준 오차	t	
초기값(π 0)													
	초기값(β 0)	3.151	0.094	33.470***	3.201	0.089	35.956	3.147	0.092	34.021***	3.171	0.096	32.933***
	통제변인												
	성별(β 01)	0.217	0.027	7.835***	0.262	0.026	10.049***	0.220	0.027	7.940***	0.218	0.027	7.879***
	부의 근로여부(β 02)	0.013	0.094	0.140	-0.026	0.089	-0.285	0.021	0.092	0.231	-0.000	0.095	-0.010
사회자본	성적만족도(β 03)	0.253	0.020	2.365***	0.184	0.020	9.139***	0.250	0.020	12.171***	0.252	0.020	12.319***
	부의 교육수준(β 04)	0.049	0.029	1.717 †	-0.010	0.027	-0.377	0.039	0.029	1.354	0.037	0.030	1.247
	학대적 양육방식(β 05)				0.295	0.027	10.683***				0.295	0.027	10.578***
	방임적 양육방식(β 06)				-0.150	0.024	-6.159***				-0.149	0.024	-6.138***
	방과후 보호자 없이 자라는 시간(β 07)				0.011	0.017	0.680				0.012	0.017	0.729
문화자본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β 08)				0.096	0.021	4.466***				0.095	0.021	4.451***
	등교일 독서시간(β 09)							0.001	0.000	2.173*			
	비등교일 독서시간(β 010)							0.000	0.000	-0.413			
	여행경험(β 011)							0.004	0.003	1.135			
	문화활동경험(β 012)							-0.000	0.002	-0.010			
경제자본	가족소득(β 013)										0.000	0.000	1.363
	용돈(β 014)										-0.008	0.008	-0.997
											0.000	0.007	-0.051

† p<.10, *p<.05, **p<.01, ***p<.001

고정효과	모형 I (통제변인)		모형 II (통제변인, 사회자본)		모형 III (통제변인, 문화자본)		모형 IV (통제변인, 경제자본)		모형 V (통제변인,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계수	표준 오차
기울기(γ 1)										
초기값(β 10)	-0.096	0.059	-1.625		-0.114	0.055	-2.058*		-0.091	0.060
통제변인										
성별(β 11)	-0.032	0.017	-1.895†		-0.044	0.016	-2.634**		-0.044	0.016
부의 근로여부(β 12)	0.072	0.059	1.234		0.086	0.055	1.562		0.081	0.055
성적만족도(β 13)	-0.078	0.012	-6.179***		-0.056	0.012	-4.334***		-0.056	0.012
부의 교육수준(β 14)	-0.028	0.018	-1.588		-0.009	0.017	-0.550		-0.013	0.018
사회자본										
학대적 양육방식(β 15)					0.107	0.016	6.517***		0.107	0.016
방임적 양육방식(β 16)					0.042	0.015	2.792**		0.042	0.015
반려주 보호자 없이 자라는 시간(β 17)					-0.015	0.012	-1.282		-0.015	0.012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β 18)					-0.027	0.012	-2.120*		-0.027	0.013
문화자본										
등교일 독서시간(β 19)										
비등교일 독서시간(β 110)										
여행경험(β 111)										
문화활동경험(β 112)										
경제자본										
가족소득(β 113)										
용돈(β 114)										
무선후과	표준 편차	변량 x 2	표준 편차	변량 x 2	표준 편차	변량 x 2	표준 편차	변량 x 2	표준 편차	변량 x 2
초기값(r 0)	0.420	0.177	4359.392***	0.355	0.126	3782.414***	0.419	0.176	4341.286***	0.355
기울기(r 1)	0.151	0.022	2800.645***	0.131	0.017	2691.058***	0.151	0.023	2799.186***	0.132
Level1 (e)	0.504	0.254		0.504	0.254		0.504	0.254		0.504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청소년의 행복감 초기값에 대한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의 영향은 <표 IV-21>에 나타나 있다. 청소년 행복감 초기값에 미치는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의 영향을 모형별로 살펴보면 통제변인 중 성별($p<.001$)과 성적만족도($p<.001$)는 모든 모형에서 청소년 행복감 초기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부의 근로여부, 부의 교육수준은 청소년 행복감 초기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의 경우 통제변인과 사회자본만을 투입했을 때, 통제변인,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을 모두 투입했을 때 모두 학대적 양육방식($p<.001$)과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p<.001$)은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방임적 양육방식은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p<.001$)을 미치고 있었다. 학대적 양육방식의 경우 앞의 생활만족도의 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변인의 비선형성으로 인해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문화자본의 경우 통제변인과 문화자본만을 투입한 모형에서는 등교일 독서시간($p<.001$)이 청소년 행복감 초기값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친데 반해 통제변인,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을 모두 투입한 변인에서는 효과가 희석되어 청소년 행복감 초기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자본 중 비등교일 독서시간, 여행경험, 문화활동 경험은 모든 모형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경제자본 또한 통제변인과 경제자본만을 투입한 모형, 통제변인,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을 모두 투입한 모형 모두에서 가족소득, 용돈 모두 청소년 행복감 초기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만족도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자본이 청소년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자본, 통제변인, 문화자본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 행복감 변화율에 대한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의 영향은 <표 IV-22>에 나타나 있는데 통제변인 중 성별, 성적만족도는 모형에 따라 유의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청소년 행복감 변화율에 유의미한 부적 효과를 미치고 있는데 반해 부의 근로여부, 부의 교육수준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의 경우, 통제변인과 사회자본만을 투입한 모형에서는 학대적 양육방식($p<.001$), 방임적 양육방식($p<.01$)이 정적 효과를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부적 효과($p<.05$)를 미치고 있었던 데 반해 통제변인,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을 모두 투입한 모형에서는 학대적 양육방식($p<.001$), 방임적 양육방식($p<.001$)은 여전히 유의미한 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으며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유의미한 부적 효과를 미치고 있었다($p>.05$). 문화자본은 통제변인과 문화자본만을 투입한 모형, 통제변인,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을 모두 투입한 모형 모두에서 청소년 행복감 변화율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자본 또한 가족소득, 용돈 모두 청소년 행복감 변화율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지 못하였다.

제 V 장

결론 및 제언

1. 요약
2. 결론 및 제언

제 V 장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행복 증진을 위한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의 역할에 주목한다.

행복을 측정하는 변인을 주관적 복지감 개념의 하위변인인 생활만족도, 행복감으로 나누어 보았으며 사회자본(학대적 양육방식, 방임적 양육방식,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 문화자본(등교일 독서시간, 비등교일 독서시간, 여행 경험, 문화활동 경험), 경제자본(가족소득, 용돈), 통제변인(성별, 부의 근로여부, 성적 만족도, 부의 교육수준)을 변인으로 활용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초4패널 데이터의 3차년도(초4, 2012년), 4차년도(초5, 2013년), 5차년도(초6, 2014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SPSS for Window 20.0와 HLM 7.0을 활용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행복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떤 변화양상을 보이는가?

첫째,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은 청소년 행복의 초기값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시간에 따른 개별 청소년간의 행복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속변인과 관련하여 초4패널 청소년의 생활만족도는 초등학교 6학년에 3.19, 중학교 1학년에 3.09, 중학교 2학년에 2.95로 감소하여 청소년기에 연령이 증가할수록 생활만족도가 감소한다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행복감 또한 초등학교 6학년인 3차조사에서는 3.30, 중학교 1학년인 4차조사에서는 3.26, 중학교 2학년인 5차조사에서는 3.17로 지속적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사회자본과 관련하여 학대적 양육방식의 변화를 살펴보면 초6 1.68, 중1 1.79, 중2 1.63으로 중학교 1학년때 증가했다가 중학교 2학년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을 살펴보면 초6 2.25, 중1 2.11, 중2 2.15로 중학교 1학년때 약간 감소했다가 중학교

2학년때 다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살펴보면 초6 3.07, 중1 2.97로 차수가 증가할수록 유의미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등교일 독서시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초6 38.48분, 중1 27.97분, 중2 28.15분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비등교일 독서시간을 살펴보면 초6 40.82시간, 중1 32.39시간, 중2 33.42시간으로 초등학교 6학년때보다 중학교 1학년때 감소한 것이 중학교 2학년때 약간 증가하기는 하나 중학교 1학년, 2학년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고 초등학교 6학년때보다 중학교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비등교일 독서시간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문화자본과 관련하여 가족 또는 단체로 여행한 연간 경험을 살펴보면 초6 3.33회, 중1 2.11회, 중2 2.34회로 초등학교 6학년 때보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가족 또는 단체로 여행한 연간 경험이 유의미하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문화활동 경험의 변화를 살펴보면 초6에 연간 4.28회, 중1에 연간 4.03회, 중2에 연간 4.58회로 중학교 1학년 때 감소했다가 중학교 2학년때 다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넷째, 경제자본과 관련하여 연간 가족소득의 변화를 살펴보면 초6은 4591.63만원, 중1 4662.87만원, 중2 4611.18만원으로 증가와 감소를 모두 나타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월간 용돈의 변화를 살펴보면 초6에 약 2만 1천원, 중1에 약 3만3천원, 중2에 약 4만원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초기값에 대한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의 영향 분석 결과 통제변인만을 투입했을 때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초기값에 성별, 성적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의 근로여부, 부의 교육수준은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초기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인과 사회자본을 함께 투입했을 때에도 성별과 성적만족도는 청소년 생활만족도 초기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부의 근로여부, 부의 교육수준은 여전히 청소년 생활만족도 초기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사회자본과 관련하여 학대적 양육방식, 방임적 양육방식,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청소년 생활만족도 초기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은 청소년 생활만족도 초기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통제변인과 사회자본을 통해 살펴볼 경우 학대적 양육방식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방임적 양육방식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높을수록 청소년 생활만족도 초기값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통제변인과 문화자본을 함께 투입한 경우 통제변인 중 성별과 성적만족도는 청소년 생활만족도 초기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부의 근로여부, 부의 교육수준은 여전히 청소년 생활만족도

초기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문화자본 중 등교일 독서시간, 여행 경험은 청소년 생활만족도 초기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비등교일 독서시간, 문화활동 경험은 청소년 생활만족도 초기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통제변인과 경제자본을 함께 투입했을 때에는 성별, 성적만족도는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부의 근로여부, 부의 교육수준은 여전히 청소년 생활만족도 초기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제자본인 가족소득, 용돈은 청소년 생활만족도 초기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정 수준의 경제수준 이상에서는 경제자본이 행복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선행연구 결과(Easterlin, 1974, 2002; Ng, 2008에서 재인용)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인,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을 함께 투입한 모형에서 통제변인 중 성별, 성적만족도가 여전히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자본 중에서도 학대적 양육방식, 방임적 양육방식,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여전히 청소년 생활만족도 초기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통제변인, 사회자본 변인, 문화자본변인, 경제자본변인을 모두 함께 투입했을 때 문화자본의 영향력이 축소되어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섯째, 청소년의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사이의 3년간의 생활만족도 변화율에 대한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의 영향을 살펴보면 통제변인만을 투입한 첫 번째 모형에서 성별, 성적만족도는 부적인 효과를 부의 근로여부는 약한 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통제변인, 사회자본을 투입한 모형에서도 여전히 통제변인 중 성별, 성적만족도는 부적인 효과를 부의 근로여부는 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사회자본 중에서는 학대적 양육방식,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은 부적인 효과를, 방임적 양육방식은 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통제변인과 문화자본을 투입한 모형에서는 앞에 모형에서와 마찬가지로 통제변인 중 성별, 성적만족도는 부적인 효과를 부의 근로여부는 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며 문화자본 중에서는 등교일 독서시간과 여행경험이 부적인 효과를 나타내 등교일 독서시간이 길수록 여행경험이 많을수록 청소년 생활만족도 변화율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제변인,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을 모두 투입한 모형에서는 통제변인 중 성별과 성적만족도는 청소년 생활만족도 변화율에 부적 효과를 부의 근로여부는 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부의 교육수준은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사회자본 중에서는 학대적 양육방식과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이 부적 효과를 방임적 양육방식은 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었으며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지 못하였다. 문화자본 중에서는 등교일 독서시간이 청소년 생활만족도 변화율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비등교일 독서시간, 여행경험, 문화활동 경험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경제자본은 가족소득과 용돈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청소년 행복감 초기값에 미치는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의 영향을 모형별로 살펴보면 통제변인 중 성별과 성적만족도는 모든 모형에서 청소년 행복감 초기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반면, 부의 근로여부, 부의 교육수준은 청소년 행복감 초기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의 경우 통제변인과 사회자본만을 투입했을 때, 통제변인,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을 모두 투입했을 때 모두 학대적 양육방식과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방임적 양육방식은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문화자본의 경우 통제변인과 문화자본만을 투입한 모형에서는 등교일 독서시간이 청소년 행복감 초기값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친데 반해 통제변인,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을 모두 투입한 변인에서는 효과가 희석되어 청소년 행복감 초기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자본 중 비등교일 독서시간, 여행경험, 문화활동 경험은 모든 모형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경제자본 또한 통제변인과 경제자본만을 투입한 모형, 통제변인,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을 모두 투입한 모형 모두에서 가족소득, 용돈 모두 청소년 행복감 초기값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행복감 변화율에 대한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의 영향을 살펴보면 통제변인 중 성별, 성적만족도는 모형에 따라 유의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청소년 행복감 변화율에 유의미한 부적 효과를 미치고 있는데 반해 부의 근로여부, 부의 교육수준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의 경우, 통제변인과 사회자본만을 투입한 모형에서는 학대적 양육방식, 방임적 양육방식이 정적 효과를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부적 효과를 미치고 있었던 데 반해 통제변인,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을 모두 투입한 모형에서는 학대적 양육방식, 방임적 양육방식은 여전히 유의미한 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으며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은 유의미한 부적 효과를 미치고 있었다. 문화자본은 통제변인과 문화자본만을 투입한 모형, 통제변인,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을 모두 투입한 모형 모두에서 청소년 행복감 변화율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자본 또한 가족소득, 용돈 모두 청소년 행복감 변화율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치지 못하였다.

2. 결론 및 제언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에 이르는 3년간의 시기를 분석한 본 연구결과 다음과 같이 결론 및 제언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중학교로의 전이시기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행복증진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조사결과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으로 가는 3년의 시기동안 청소년의 행복은 물론 청소년의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의 다양한 영역에서 열악한 상황으로의 변화가 파악되었다. 청소년의 인지적 행복인 생활만족도가 감소되고 있으며 정서적 측면의 행복인 행복감 또한 감소하고 있다. 흔히 가장 어려운 청소년시기라고 일컬어지는 중학교 시기의 열악한 상황이 본 조사결과 다시 한번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행복의 감소 뿐 아니라 부모의 양육방식과 관련하여 중학교에 첫 입학한 1학년 시기에 일시적이거나 학대적 양육방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방과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도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 자녀의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차수가 증가할수록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학업의 부담과 다양한 사회적 자원의 부족으로 청소년 개인의 중요한 문화적 자원인 독서시간 또한 감소되고 있다. 청소년의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다양한 연구에서 지적되어 온 여행경험 또한 중학교 시기로 들어섬에 따라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문화활동 경험은 일부 증가하고 있으나 분석 결과 문화활동경험이 청소년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건데 이시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은 청소년 개인은 물론 부모에게도 지원되어야 한다. 다양한 건강가정교육을 통해 긍정적 양육방식을 학습하도록 하고 청소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외부활동, 방과후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갖게 하는 동시에 청소년 스스로 독서할 수 있는 가정 내, 학교, 지역사회 내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성적만족도는 본 연구결과 지속적으로 청소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지적된 바 있는데, 청소년에게 성적이 가지는 의미가 큰 만큼 이를 간과하지 말고 긍정적 측면의 학업지원이나 학업스트레스 해소 방안을 지원하는 것 또한 청소년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맞춘 청소년정책을 사회자본, 문화자본의 지원으로 보다 강화, 확대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다양한 연구에서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경제적 자본의

영향이 드러나지 않은 반면, 특히 가정내 부모양육태도, 자녀에 대한 관심, 방과후 부모와의 시간 등 가정내 사회자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 개인 또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청소년 행복 증진을 위해 가정 내 사회자본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문화자본의 역할은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사회자본 만큼의 명확한 행복과의 인과관계를 보여주지 않았으나, 경제자본과 사회자본을 포함시키지 않는 모형에서 청소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문화자본이 청소년의 행복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의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제까지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청소년활동의 경우 다양한 문화활동 참여에 관심을 갖는 반면 다양한 가정내 사회자본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가정내 사회자본은 물론 개인의 사회자본을 강화하려는 다양한 노력과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의 영향력에 비해 사회자본의 영향력이 본 연구 결과 매우 두드러진 것으로 보아 가정내 사회자본은 물론 지역사회 내 사회자본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신뢰, 규범, 관계망 등의 강화는 물론 가족생활교육, 개인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미시적 차원의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청소년 행복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에 대한 확대 노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청소년 행복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는 성별, 성적만족도, 학대적 양육방식, 방임적 양육방식, 친구들에 대한 부모관심, 등교일 독서시간, 여행경험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화자본, 사회자본과 관련한 변인으로서는 사회자본의 경우 양육방식, 친구들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도출되었으며 개인의 문화자본으로 등교일 독서시간, 여행경험 등도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국의 청소년 행복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달린다고 다양한 매체에서 발표되고 있다. 청소년 행복은 청소년 우울과 관련하여 다양한 심리·정서·신체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관련하여 비행, 폭력 등 다양한 사회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은 물론,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도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열악한 한국 청소년의 행복 향상을 위해 다양한 측면의 노력이 본 연구에서 검증된 변인들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수 십년동안 강조되어 온 사회자본의 역할과 더불어 청소년에게 독서활동, 여행경험 등 문화자본이 가지는 중요성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등교일 독서시간이 청소년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학기 중에 다양한

학원수업, 보충수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의 청소년에게 있어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성적만족도가 청소년의 행복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 가정내 역할강화, 독서활동, 여행경험 등의 확대 등을 통해 청소년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초점이 사회자본, 경제자본, 문화자본과 행복의 관련성에 있다고 하나 통제변인과 행복의 관련성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성별은 중요한 변인으로 지속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즉, 여성 청소년의 경우 남성 청소년에 비해 행복의 초기치가 낮아 이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청소년 행복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 있어 성별차이를 고려하여 각 성별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청소년 행복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과 가정의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했다는 데에 대해 그 의의를 가지며 행복의 하위 변인을 인지적 행복인 생활만족도와 정서적 행복인 행복감으로 나누어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차이를 검토함으로써 청소년의 단기적, 지속적 인지, 정서적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지점을 파악했다는 데 다른 연구와의 차이점을 갖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변인(예: 학대적 양육방식)의 경우 선형성을 가정하지 못해 연구의 결과의 방향성에 대해 해석에 제한점이 있었던 점이 있다. 추후 연구를 통해 다양한 변인의 선형성, 비선형성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보다 적합한 연구모형을 수립함으로써 청소년 행복 증진을 위한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김경근·변수용(2007). 한국사회에서의 학업성취에 대한 문화자본의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17(1), 23-51.
- 김석환(2014). 게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가정환경요인분석: 경제, 문화,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백병부·김경근(2007). 학업성취와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의 구조적 관계. *교육사회학연구*, 17(3), 101-129.
- 홍세희·박언하·홍혜영(2006). 다층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자아개념 변화 추정: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에 대한 부모효과와 또래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17(2), 241-263.

<해외문헌>

- Bourdieu, P. (1973). Cultural Reproduction and Social reproduction.
- Bourdieu, P.(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Greenwood Press.
- Bruni, L. (2006). *Civil Happiness: Economics and Human Flourishing in Historical Perspective*. Routledge.
- Chang, L., McBride-Chang, C., Stewart, S. M., & Au, E. (2003). Life satisfaction, self-concept, and family relations in Chinese adolescents and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7, 182 - 189.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5-120.
- DiMaggio, P. (1982). Cultural capital and school success: The impact of status culture participation on the grades of US high school stude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89-201.
- Dumais, S. A. (2002). Cultural capital, gender, and school success: The role of habitus. *Sociology of Education*, 44-68.
- Easterlin, R. A.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89, 89-125.
- Fowler, J. H., & Christakis, N. A. (2008). Dynamic spread of happiness in a large social network: longitudinal analysis over 20 years in the Framingham Heart Study. *Bmj*, 337, a2338.
- Frijters, P., Haisken-DeNew, J. P., & Shields, M. A. (2004). Money does matter! Evidence from increasing real income and life satisfaction in East Germany following reunific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730-740.
- Goldbeck, L., Schmitz, T., Besier, T., Herschbach, P., & Henrich, G. (2007). Life satisfaction decreases during adolescence. *Quality of Life Research*, 16(6), 969-979.
- Hayo, B. (2007). Happiness in transition: An empirical study on Eastern Europe. *Economic Systems*, 31(2), 204-221.
- Kalmijn, M., & Kraaykamp, G. (1996). Race, cultural capital, and schooling: An analysis of trends in the United States. *Sociology of Education*, 22-34.
- Kawachi, I., Kim, D., Coutts, A., & Subramanian, S. V. (2004). Commentary: Reconciling the three accounts of social capital.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33(4), 682-690.
- Lamont, M., & Lareau, A. (1988). Cultural capital: Allusions, gaps and glissandos in recent theoretical developments. *Sociological Theory*, 6(2), 153-168.
- Layard, R. (2005). *Happiness: Lessons from a new science*. New York, USA: The Penguin Press.

- McCullough, G., Huebner, E. S., & Laughlin, J. E. (2000). Life events, self concept, and adolescents' positive subjective well being. *Psychology in the Schools*, 37(3), 281-290.
- Manski, C. F. (2000). *Economic Analysis of Social Interaction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Ng, Y. (2008). Happiness Studies: Ways to Improve Comparability and Some Public Policy Implications. *Economic Record*, 84(265), 253-266.
- Pacek, A. C., & Radcliff, B. (2008). Welfare Policy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 Nations: An Individual-Level Assessment. *Social Indicators Research*, 89(1), 179-191.
- Park, N. (2005). Life satisfaction among Korean children and youth: A developmental perspective.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26, 209 - 223.
- Proctor, C. L., Linley, P. A. and Maltby, J.(2009). Youth life satisfac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0(5), 583-630.
- Raudenbush, S. W., & Bryk, A. S. (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 (Vol. 1). Sage.
- Suldo, S. M., & Huebner, E. S. (2004). Does life satisfaction moderate the effects of stressful events on psychopathological behaviour during adolescence? *School Psychology Quarterly*, 19, 93 - 105.
- Ullman, C., & Tatar, M. (2001).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Israeli adolescents immigrants: A report on life satisfaction, self-concept, and self-estee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 449 - 464.
- Veenhoven, R. (2007). *World database of happiness, distributional findings in nations*, Erasmus University Rotterdam.
- Verde, M. (2010). *Analytical Framework for Youth Policies*. Social policy Research Brief.
- Winkelmann, L., & Winkelmann, R. (1998). Why are the unemployed so unhappy? Evidence from panel data. *Economica*, 65(257), 1-15.

Yip, W., Subramanian, S. V., Mitchell, A. D., Lee, D. T. S., Wang, J., & Kawachi, I. (2007). Does social capital enhance health and well-being? Evidence from rural China. *Social Science & Medicine*, 64(1), 35-49.

<인터넷 홈페이지>

세계 행복 데이터베이스(World Database of Happiness), <http://worlddatabaseofhappiness.eur.nl/>

Abstract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VI: Data Analysis Report 1 – Longitudinal Effect of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Capitals on Youths' Happiness

This study focused on the role of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capitals for the improvement of youths' happiness. Factors to measure happiness were divided into subfactors of the concept of subjective welfare, i.e., satisfaction with living and the feeling of happiness. Variables included social capitals (abusive upbringing, permissive upbringing, unguarded time after school, and parents' interests in friends), cultural capitals (reading time on school days, reading time on non-school days, travel experience, and experience in cultural activities), economic capitals (family income and pocket money), and control variables (gender, father's employment, satisfaction with school results, and father's educational level). The data of the elementary school grade 4 panel in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from Year 3 (elementary school grade 6, 2012) to Year 4 (middle school grade 1, 2013) were used. SPSS for Windows 20.0 and HLM 7.0 were used for analysis. Subjects for inquiry were as follows:

Firstly, how do youths' happiness change over time as they grow older?

Secondly, what effects do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capitals have on the initial values of youths' happiness?

Thirdly, what are variables that influence change in individual youths' happiness over time?

Key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youths' happiness (satisfaction with living and the feeling of happiness) declines over the period from elementary school grade 6 to middle school grade 2.

Secondly, variables that influenced the initial values of youths' satisfaction with living included gender, satisfaction with school results, father's educational level, abusive upbringing, permissive upbringing, and parents' interests in friends. Variables that influenced the initial values of youths' happiness included gender, father's employment, satisfaction with school results, abusive upbringing, permissive upbringing, unguarded time after school, and reading time on school days.

Thirdly, variables that influenced change in youths' satisfaction with living included gender, father's employment, satisfaction with school results, abusive upbringing, permissive upbringing, unguarded time after school, and reading time on school days, and variables that influenced change in youths' happiness included gender, satisfaction with school results, abusive upbringing, and permissive upbringing.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were drawn based on these results.

Keywords: Youth happiness, social capital, cultural capital, economic capital, HLM.

201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5-R01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 이경상 · 조용하
- 15-R02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Ⅱ / 최창욱 · 문호영 · 김진호
- 15-R02-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Ⅱ -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 · 문호영
- 15-R03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셜 미디어 활용 연구 / 배상률
- 15-R04 지역사회 청소년의 인성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 임지연 · 김영석 · 김혁진
- 15-R05 청소년수련시설 역할 재정립 및 정체성 확립 방안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 김인규
- 15-R06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 국제교류 발전 방안 / 김기현 · 황세영 · 이경자 · 강영배
- 15-R07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 황여정 · 김정숙 · 이수정 · 변정현
- 15-R08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 김지경 · 정연순
- 15-R09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백혜정 · 송미경
- 15-R10 아동 · 청소년 · 가족 보호체계 개선방안 연구 / 김지연 · 좌동훈 · 박세경 · 한미경
- 15-R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총괄보고서 / 김영지 · 김희진 · 이민희 · 박선영
- 15-R1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청소년 인권의식과 시민적 권리의 경험에 대한 관련 요인 분석 / 김진석
- 15-R11-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Ⅴ : 2015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 · 김희진
- 15-R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총괄보고서 / 김영한 · 오해섭 · 성윤숙 · 정윤미
- 15-R12-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과 추진전략 개발 / 오해섭 · 김세광
- 15-R12-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 성윤숙 · 홍성호
- 15-R12-3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 청소년정책모니터단 운영 연구 / 김영한 · 정윤미
- 15-R13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Ⅲ : 총괄보고서 / 김현철 · 모상현 · 오성배
- 15-R13-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Ⅲ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현철 · 모상현
- 15-R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Ⅱ : 위기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 이유진 · 박선영
- 15-R14-1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Ⅱ :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모형 개발 및 창업 활성화 방안 / 강경균 · 이춘우
- 15-R15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Ⅰ / 김경준 · 김태기
- 15-R15-1 외국의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 비교 연구 / 이진영 · 장안리 · 김판준 · 임영연 · 정호원 · 성일광
- 15-R16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Ⅵ : 사업보고서 / 이종원 · 서정아 · 정은주 · 강현철 · 한영근
- 15-R16-1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Ⅵ : 데이터분석보고서Ⅰ -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이 청소년 행복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 서정아

15-R16-2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Ⅵ : 데이터분석보고서2 -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 / 정은주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윤철경·최인재·유성렬·김강호 (자체번호 15-R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2 비행·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전영실·김지영·박성훈 (자체번호 15-R17-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1-0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 조사결과자료집 / 윤철경·최인재 (자체번호 15-R17-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초·중·고등학생용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 분석보고서 / 장근영·성은모·최홍일·진성희·김균희 (자체번호 15-R18-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5-32-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Ⅱ : IEA ICCS 2016 - 청소년의 사회참여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분석 연구 / 김태준·오민아·이영훈 (자체번호 15-R18-3)

연구개발적립금

15-R19 동북아 청소년정책 국제비교 연구 / 김정숙·김기현·황세영

15-R20 대학비진학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사업 추진방안 연구 / 윤민중·김기현·한도희

수 시 과 제

15-R2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연구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과제 개발 기초연구 / 김영지·김희진

15-R22 '사회적 통증' 개념을 통한 청소년 정신건강 이해 : 중독과 자살생각 / 장근영·전우영

15-R23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 황세영·조성화

15-R23-1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워크북 / 황세영·조성화·곽정난·김경전·현명주

15-R24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현황과 전망 : 생애과정 연구를 중심으로 / 김현철

15-R25 동북아 청소년연구 분류체계 구축 연구 / 김정숙·김기현

15-R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안과 의제 / 김지연

- 15-R27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운영 실태와 확대방안 연구 / 좌동훈
- 15-R28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청소년 삶의 질 정책방안 연구 / 김기현 · 좌동훈 · 강경균 · 김정숙 · 황세영 · 문호영 · 윤민중
- 15-R29 의료형 청소년쉼터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 김지연
- 15-R30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체험활동 연계모형 평가 연구 / 김기현 · 김형주
- 15-R31 국가근로장학사업으로서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운영체계의 개선 - 대학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 김지경 · 윤민중
- 15-R32 청소년운영위원회 연간활동 효율화 방안 연구 / 최창욱 · 좌동훈
- 15-R33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 개발 / 이경상 · 장원경
- 15-R34 청소년분야 ODA 사업추진 기본방향 마련 / 최창욱 · 한도희
- 15-R35 생애주기에 따른 아동 · 청소년 · 청년 연령구분 실태와 방향 / 문호영 · 최창욱

수 탁 과 제

- 15-R36 청소년활동 중장기 수요 및 공급기반 조성 연구 / 김영한 · 유성렬 · 임성택 · 주동범
- 15-R37 2014년도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적용 게임물 평가 / 배상률 · 유홍식 · 김동일
- 15-R38 201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 · 이유진 · 김영한
- 15-R39 2015년 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 · 최홍일
- 15-R40 가출 청소년 실태 및 청소년쉼터 중장기 발전방안 / 백해정 · 좌동훈
- 15-R41 청소년 연계서비스 시범사업 개선방안 연구 / 서정아 · 전영기
- 15-R42 청소년 디지털 매체 및 서비스 이용실태 연구 / 성윤숙 · 김경준 · 김희진
- 15-R42-1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 사례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 / 성윤숙 · 김경준 · 김희진
- 15-R43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최인재 · 이경상 · 김정숙 · 장근영
- 15-R44 청소년 · 가족 연계서비스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서정아 · 조성은
- 15-R45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경 · 최인재
- 15-R46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위상 정립방안 모색 연구 / 김현철 · 최창욱
- 15-R47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방안 / 김지경 · 이상준
- 15-R48 나라사랑 체험프로그램 효과 분석 / 최창욱 · 성은모 · 정윤미
- 15-R49 2015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김기현
- 15-R50 2025 청년 전망 및 향후 정책 추진과제 연구 / 김기현 · 김형주 · 박성재 · 민주홍 · 김종성
- 15-R51 청소년 권리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 김영지 · 모상현 · 이용교
- 15-R52 성남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방안 연구 / 김영지 · 모상현
- 15-R53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5 / 김희진 · 이종원 · 유성렬 · 김진석
- 15-R54 제11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연구 / 최창욱
- 15-R55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 김혁진
- 15-R5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 관리체계 개선 및 2015년 사업 효과 만족도 조사 연구 / 김영지 · 정은주 · 김정주
- 15-R56-1 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성과 분석 및 만족도 조사 연구 / 정은주

- 15-R57 과학적 실행 중심 모형기반 생명과학 교수학습 디자인 실험연구 / 황세영
- 15-R58 2015년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효과성 및 만족도 연구 / 황세영 · 윤민중
- 15-R59 휴먼네트워크 협력기관 실태조사 / 성은모 · 강경균
- 15-R60 청소년의 'X-질문' 발굴 및 개선방안 연구 / 강경균
- 15-R61 청소년활동안전센터 중장기 계획 연구 / 김영한 · 임지연
- 15-R62 휴먼네트워크 코디네이터 전문성 강화 연구 / 성은모 · 서동인
- 15-R63 아산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따른 연구 / 김영한 · 오해섭 · 정윤미
- 15-R64 서울시 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 / 모상현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5-S01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 연구결과 공개 보고회 (1/19)
- 15-S02 온라인 도움행동의 원인 (2/9)
- 15-S03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1권역 (2/23~27)
- 15-S04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2권역 (2/23~27)
- 15-S05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3권역 (2/23~27)
- 15-S06 2015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4권역 (2/23~27)
- 15-S07 2014년도 제1차 연구성과발표회 (3/12)
- 15-S08 2014년도 제2차 연구성과발표회 (3/13)
- 15-S09 일본진로교육의 현황과 과제 (3/31)
- 15-S10 2015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 (4/16)
- 15-S11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위원 워크숍 (4/28)
- 15-S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교육 (4/29)
- 15-S13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1권역 (5/12~13)
- 15-S14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2권역 (5/18~19)
- 15-S15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3권역 (5/26~27)
- 15-S16 2015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4권역 (5/28~29)
- 15-S17 교육 소외와 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 후 청소년 정책 : 지역 방과 후 청소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5/18~19)
- 15-S18 2015년 꿈키움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5/21)
- 15-S19 2015 청소년 문화와 안전 국제포럼 (6/4)
- 15-S20 2015년 대안학교 진로직업교육 컨설팅위원 워크숍 (6/4)
- 15-S21 재외동포 청소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 (6/26)
- 15-S22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II 데이터 분석 세미나 (7/2)
- 15-S23 2015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7/8~10)
- 15-S2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관계자 워크숍 (7/9~10)
- 15-S25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1권역 (7/27~28)
- 15-S26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2권역 (7/28~29)
- 15-S27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교장 워크숍 3권역 (8/3~4)

- 15-S28 2015년 제2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7/30~31)
- 15-S29 청소년의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방안 및 추진전략 (7/22)
- 15-S3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해외사례 (8/11)
- 15-S31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담당자 교육 워크숍 (8/21)
- 15-S32 제2회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의 성인기로의 이행 (9/17)
- 15-S33 민족정체성 확립의 역량을 미치는 4가지 주요요소 : 1960년대 및 70년대 초와 80년대 및 90년대 초에 자라난 젊은세대의 비교 (9/14)
- 15-S34 대안교육 국제포럼 2015 (9/16)
- 15-S3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성과발표회 (9/18)
- 15-S36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디지털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10/19)
- 15-S37 제5회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0/23)
- 15-S38 한-중 국제세미나 (10/27)
- 15-S39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워크숍 -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현황과 전망 - (10/21~22)
- 15-S40 제4회 동북아청소년정책포럼 - 한·러 차세대 전무가 대화 : 동북아미래를 위한 한·러 청소년(차세대) 정책 협력 (11/17)
- 15-S41 국회다정다감포럼 -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과제와 방향 (11/5)
- 15-S42 2015년 시·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업무 담당자 워크숍 (11/26~27)
- 15-S4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심화워크숍 (12/17~18)
- 15-S44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기준 개발 (12/10)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1호(통권 제7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2호(통권 제77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3호(통권 제7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4호(통권 제79호)

기 타 발 간 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9호 : 아동·청소년 대상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0호 :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1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방안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2호 : 기출청소년 보호지원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3호 :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회복적 정의모델 도입방안 연구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4호 : 가정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9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0호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 I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1호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연구Ⅳ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2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Ⅰ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3호 : 청소년의 휴대전화 보유 현황과 이용빈도, 휴대전화 의존도
- KCYPS 초1 패널 제5차년도 조사결과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4호 : 청소년 체험·여행·문화활동과 삶의 만족도
- KCYPS 초4 패널 제5차년도 조사결과 분석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5호 : 초등학교생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분석 - KCYPS 초4 패널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호 : 지금, 이 시대 왜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에 주목해야하는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호 : 아동, 청소년 보호체계 쟁점 사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3호 : 청소년수련시설의 역할과 정체성, 재정립이 필요한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4호 : 동북아 청소년연구 분류체계 구축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5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현안과 의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6호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운영 실태와 확대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7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의 필요성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8호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청소년 삶의 질 정책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9호 : 그 나라는 어때? 세계의 청소년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0호 : 의료형 청소년쉼터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1호 :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체험활동 연계모형 평가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2호 : 청소년의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이용 현황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해외사례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3호 : 지역사회의 청소년 인성교육 실태와 과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4호 : 청소년의 기업가정신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여건 조성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5호 : 청소년 나눔활동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6호 : 동북아지역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 및 사업 현황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7호 : 국가 근로 장학사업으로서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운영체계의 개선
- 대학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8호 : 재외동포청소년의 주요 이슈와 지원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19호 : 청소년운영위원회 연간활동 효율화 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0호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기준 개발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1호 : 생애주기에 따른 아동·청소년·청년 연령구분 실태와 방향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2호 : 청소년분야 ODA 사업 추진 기본방향 마련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3호 : 학령기에 학교를 나온 청소년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4호 :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청소년현안 Blue Note 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여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가을호
청소년현안 Blue Note 겨울호

연구보고 15-R16-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VI: 데이터분석보고서 1
-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이 청소년 행복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인 쇄 2015년 12월 24일

발 행 2015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휘문인쇄 전화 1661-7576 대표 김점순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083-0 94330

979-11-5654-064-9 (세트)

연구보고 15-R16-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VI:

데이터분석보고서1

-사회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이

청소년 행복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